[UCI]I804:24011-200000234946

2005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현 정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ture of
Hwang Jin-i, and Lee Mae-Chang.

2005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현 정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 비교 연구

지도교수 김 정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김 현 정

김현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權純烈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樹中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金正柱

2005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i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방법 ·····1
2. 연구사 ·····3

Ⅱ.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적 배경 ·····6

Ⅲ.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 비교 고찰 ·····27
1. 황진이 문학의 특성 ·····27
1) 시조 ·····27
2) 한시 ····· 31
2. 이매창 문학의 특성 ····· 38
1) 시조 ····· 38
2) 한시 ····· 39
3. 양자의 문학 비교 고찰 ····· 54
1) 주제에 나타난 작가 의식 ····· 54
2) 작품 속에 나타난 세계관 ····· 56

Ⅳ. 황진이 · 이매창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59

Ⅴ. 결 론 ····· 61

참고문헌 ·····63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terature of Hwang Jin-i, and lee Mae-chang.

Hyun-Jung Kim
Advisor : Prof. Jeong-ju Kim,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Both Hwang Jin-i and Lee Mae-chang are gee-sang poets in Ye dynasty.

Hwang Jin-i left six poem in shi-jo and seven chinese poetry and all of them have beauty of art. Thus those works have been on the tongues of people until the present.

Lee Mae-chang left poetry of Mae-chang in which a poem in shi-jo and 58 chinese poetry are printed. This graduation theses developed existing studies which was made individually and observed carefully a common point and difference between two of them.

In writing the sorrow of parting and loves, her positive and aggressive self-consciousness is open-heartedly expressed, and a strong minded life of elegant youth also is reflected well.

On the other hand, Lee Mae -chang tried to make a heart pining for an absent love come true in dream and spiritual world, for dream and spiritual world is described as space of hope that keeps his existence.

Aa a result of study on Hwang Jin-i's and Mae -chang's literatures, first, judging from writer's sense represented in subject,
we can see that the theme of affection and temptation is mentioned only in Hwang Jin-i's literature and the theme of an immortal thought is mentioned only in Mae -chang's literature and we can find that, for this, Hwang Jin-i expressed her feelings straightly , while Mae-chang used, depending on other objects, metaphorical expressions.
Secondly, judging from a view of the world expressed in works,
Hwang Jin-i didn't deplore her destiny of gee-sang, on the contrary, lived her given life as positive as possible . but Having skeptical a view of the world about the life of gee-sang, Mae -chang pathetically sang of her ill-fated destiny in a poem.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현전하는 고전시가의 작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대부 출신의 남성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 당시에 『內訓』에 의거 해 여성들에 대하여 사회 및 문학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조 여인들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보다는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순종과 인내만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일체 글 배우는 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남성과 비견해 소량의 작품들이 전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의 여성들은 "단지 남자만 가르치고, 여자는 글을 가르쳐서 안 된다."는 사회 환경 속에서 여사행(女四行)[1]만을 지키면 족한 것이요, 그 이상 배우거나 활동하면 강력히 규제 당했다. 이는 여자가 글자를 알면 도리어 집안의 규범을 그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있어서 才보다는 德을 우선시 여겼던 조선시대의 사회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유교주의의 사회에서도 일부 여성들은 후인들이 놀랄 만큼의 눈부신 문학 활동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산문으로는 『내훈』을 저술한 소혜왕후와 『한중만록』을 기술한 혜경궁 홍씨, 그리고 『의유당 일기』를 쓴 연안 김씨 등이 주봉이 되며, 시조에서는 황진이, 가사로는 난설헌 허씨 등이 있다. 대다수의 여류 작가들은 사회제도로 인해 비롯된 운명적 한을, 文보다 詩를 통해 규한과 별한으로 노래하였지만, 그들의 삶과 문학 속에서 조선조 여성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초월할 수는 없었다.

한편, 동시대를 살았던 기녀들은 달랐다. Ⅱ장에서 다뤄지겠으나, 기녀들은

1) 『內訓』 言行章: "女四行"에서 여자는 婦德, 婦容, 婦言, 婦功을 닦으면 되는데, 그것은 모두 絶人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 글을 배우지 않고 되는 것들이었다.

일반 부녀자와는 다른 특수한 신분으로 도덕규범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고, 매우 진솔한 감정 표현을 문학을 통해 구사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기녀로 손꼽히는 황진이와 이매창에 대한 문학을 연구하고자 한다.

황진이와 이매창은 조선조 기녀 시인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들로 황진이는 조선 중종·명종대의 송도 기녀였고, 이매창은 선조·광해군대의 부안 기녀였다. 그러나 이들의 生沒年代가 정확하지 않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분분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연구자는 동시대의 인물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황진이가 50여년 이상의 先代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양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당시의 기녀들이 갖춰야 할 詩, 樂에 모두 뛰어난 재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많은 풍류객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작품들이 오랜 세월동안 인구에 회자되는 뛰어난 작품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인 인물인 황진이에 비해 이매창은 순종적이며 인고의 덕을 지닌 여성으로 문학 창작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2] 이에, 본고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시조와 한시의 문학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녀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문학의 한 자리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이들 문학에 영향을 끼쳤을 총체적인 배경을 고찰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 기녀의 생활과 기녀문학 전반을 살펴보고, 작품이 작가의 생애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작가론적 관점에서 황진이와 이매창의 생애와 성격, 그리고 이들이 교유했던 인물과의 연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황진이와 이매창의 개별적인 문학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그들의 문학세계를 비교해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2) 김지용은 황진이가 자유분방한 개성적인 멋을 지녔다면, 매창은 정의에 가득차고 정절도 굳으며 인내와 순종과 여성적 섬세한 멋을 지닌 여성이라고 평가했다.

자 한다. 기녀들은 불우한 처지에 있었으면서도 풍류를 알고 멋을 알았으며, 사랑의 정열로 자신을 불태우면서 자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작품이 진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규방의 여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정절을 기녀들도 지키고자 했다. 그러나 기녀들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정서적 지배를 보면 이별 뒤에 오는 원망의 정한이 가장 많다. 그 외에 개성에 따른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기방의 고독과 실연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사대부들의 냉정함으로 받는 처참한 상황에서 비롯된 정한이다. 그러므로 기녀 문학은 규한을 노래한 것이 주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조선조 여성 문학의 특질이기도 하기에 황진이와 이매창의 문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이들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황진이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작가론 측면에서 황진이의 생애와 연정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고, 둘째는 작품론 측면에서 황진이의 시조와 한시를 분석하여 그 특질을 규명하려는 것이며, 셋째는 비교문학 입장에서 황진이를 중국의 명기 설도와 비교 분석한다던지, 조선시대의 여류 시인 난설헌 허씨와 비교해 보려는 것 등이다.

한편, 시기 별 연구 현황을 살펴 보면 황진이 연구는 「황진이시와 한국시의 전통」[3]에서부터 연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동양과 서양 시와의 비교론적 입장에서 전통성을 규명하고, 황진이시가 여성적인 시의 대표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4]에서 는 황

3) 조운제, 「황진이 시와 한국시의 전통」, 우석대학교 논문집2.3권, 1969.

4) 최동호, 「황진이 시의 양면성과 현대적 변용」, 고려대학교 어문 논집18권, 1977.

진이의 시적 발상의 기본적 구조를 주관적인 세계를 그린 것과 객관적인 세계를 표출시킨 것의 이원적 구조로 분석 하였다. 「황진이시의 Tension」[5]에서는 황진이 작품의 본질을 Tension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여 황진이가 생동감 있는 인간적인 시를 창작했다고 하였다. 「황진이론」[6]은 황진이의 시조를 분석하여 이를 '멋의 문학'이라고 칭하며 탁월한 수사기법으로 여류 문학에 금자탑을 쌓게 했다고 하였으며, 「황진이의 시조론」[7]에서는 그의 작품을 고찰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말하고 작품 중에서도 언어적 측면에서 논의하여 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황진이와 허난설헌」[8]은 비교 문학적 연구에서 양자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황진이는 자아가 해방되었으나, 난설헌은 기형적인 자기 표출을 하고 있다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매창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74년 김지용을 시작으로 1980년대 말까지 활발히 이루어져왔으나, 90년대의 연구는 매우 미비한 편으로 근 10여년의 연구 공백을 가지다가 최근 2003년 강서형님의 연구로 이어진다.

매창 문학 연구를 종합해 보면 첫째, 기녀문학을 논하면서, 그 안에 매창의 한시 몇 작품만을 들어서 단편적이고, 상투적으로 '고독과 한의 문학', '비련의 문학' 등으로 규정하는 연구 경향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매창의 생애나, 매창의 작품 일부분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종합적인 면으로의 접근이 이뤄지지 못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 경향은 촌은 유희경과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가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경향을 들 수 있다.

매창 연구 역시 시기별 연구 현황을 고찰해 본 결과, 「매창문학연구」[9]가 매창 문학 연구의 효시격으로 보여 진다. 이 논문에서는 매창과 관련된 모든

---

5) 윤영옥, 「황진이 시의 Tension」, 국어 국문학 83호, 한국 국어 국문학회, 1980.

6) 이신복, 「황진이 론」, 『한국문학 작가론』, 형설출판사, 1981.

7) 김용덕, 「황진이의 시조론」, 한양대 인문 논총 권 4 호, 한양대, 1982.

8) 김동욱, 「황진이와 허난설헌」, 『현대문학』, 제1권 9호, 현대문학사, 1955.

9)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 논문집 6, 1974.

기록을 가지고 잘못된 매창의 생몰 연대를 바로 잡고 있다. 또한 매창과 촌은과의 애정을 중심으로 생애와 문학적 특질을 파악하였다. 「매창연구」[10]는 매창의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형식면에 치중한 연구였고, 이 논문에서 매창을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류시인으로 평가하였다. 「매창 한시의 이미지 분석」[11]에서는 작품 속의 다양한 이미지 분석에 치중한 가운데 매창문학의 특질을 파악하였다. 한편,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으로 「매창문학연구」[12]는 <매창집>의 서지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간송본, 하버드 본, 가람본, 신석정대역본 등의 각 이본들에서 보이는 매창의 작품 수의 차이를 밝힌 후, 그 결과, 매창의 작품 수를 한시 65수, 시조 1수로 파악하였다. 『이매창 연구』[13]는 매창 문학에 관한 기존의 자료를 총 망라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은 것으로 매창 문학에 관한 자료집의 역할에 충실한 내용을 실어, 매창 연구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 발표된 「매창 한시 연구」[14]에서는 매창의 문학을 사회, 문학적 배경에 의해 살펴보고, 매창 한시의 미적 범주를 비극미와 우아미, 그리고 희극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논문들이 있으나, 거의가 유사한 연구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황진이와 이매창에 대한 비교학적인 관점이 아닌 개별적인 논의는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데 비해, 아쉽게도 정작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인 양자의 비교 연구는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다. 단지, 「황진이·이매창의 시조와 한시」[15]라는 소논문 정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기존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새로운 시도가 되기를 바란다.

---

10) 전원범, 「매창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7.

11) 문선지, 「매창 한시의 이미지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80.

12) 최영이, 「매창문학연구」, 전북대학교 석사논문, 1987.

13) 허미자, 「이매창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14) 강서형, 「매창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5) 조창환, 「황진이·이매창의 시조와 한시」, 인문논총 제 6 집, pp.91-107, 1995.

Ⅱ.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적 배경

1. 기녀의 형성

1) 기녀의 기원

기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는 문헌이 없기에 자세히 알기는 어려우나, 妓의 가무적 특성에서 몇 가지 기원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먼저 무녀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지방 토호와 결부되어 기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과 전쟁으로 인해 생긴 포로들 중에서도 예능적 재질이 있는 여자가 奢侈奴隷가 되어 기녀가 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다.[16] 이 외에 사노비의 賣淫文化와 신라의 歌尺 및 女樂弟子의 遊女化를 들고 있다.[17]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기생사의 유일한 문헌인 『조선해어화사』의 저자인 이능화는 기생의 기원은 源花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비석도 원화라는 것은 본디 임금님이 신하들과 더불어 무리를 지어 노닐 때에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여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 견해를 뒷받침 했다.

하지만 '기생'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은 고려 이후의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화와 기생은 출신 신분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랐다. 즉 원화는 양가집 규수들 중에서 얼굴이 아름답고 행동거지가 뛰어난 여자를 골라 뽑는 데 반하여, 기생은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무자리[18]'의 딸들 중에서 뽑은 것이

16) 김동욱, 「이조 기녀사 서설」, 『아세아여성연구』 제5집, 숙대아세아여성연구소, 1966.

17) 김용숙, 『한국 여속사』, 민음사, 1990, p.60.

18) 삼국 시대의 유민 족속들로서 그들은 관적도 없고 부역도 아니 하고, 산과 들로 돌아다니며, 사냥질과 고리를 엮어 파는 떠돌이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다.

다.

고려시대에는 전쟁 포로에 의한 노비가 대개 이민족이었다. 이들은 대개 관아에 예속되거나 왕실에 헌납되어 공노비가 되었으며, 그 공노비 가운데 약간은 공신에게 하사되어 사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노비 중 기예를 갖춘 여자가 家妓로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녀 층이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고려는 반역자의 처자를 적몰하여 관비로 삼았는데, 이처럼 귀부녀가 천인화되는 과정 속에서 기녀로 전락하여 또 하나의 기녀층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2) 조선시대의 기녀 생활

조선은 관기 제도 면에서 고려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 기녀활동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기녀는 남존여비의 사회 체제하에서 남성이 느낄 수 없는 恨을 안고 살아야 했던 여성인 동시에 천인계급에 속하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궁중의 여인이나 민간의 부녀자들에 비해 훨씬 더 절절한 한을 가진 여성들이었다.

한편 기녀는 다른 부류의 여성들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했던 존재였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남녀간의 접촉면에서 그러했다. 기녀들은 남성들의 놀이개로 아무렇게나 이용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면서, 위로는 王侯將相으로부터 아래로는 妓夫인 賤人에 이르기까지 실로 폭넓은 남성 접촉의 생활을 영위했다. 여체를 갈망하는 남성들 틈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남성들의 합법적인 외도의 대상으로서 큰 몫을 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이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공공연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한 恨은 스스로 감수해야 했던 몫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부류의 여성과는 또 다른 성격의 비련과 자탄에 울어야 했다. 이를 통해 기녀의 생활을 정리해보면 하나는 천인계급인 그들이 감수해야 했

던 비련과 고독의 생활이요, 다른 하나는 규방 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자세로 추구해 나간 멋의 생활이다.[19] 이러한 삶은 기녀의 문학 특질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기녀 문학의 형성

기녀들의 문학생산은 양적으로 보아 많은 편이 못 된다. 여성으로서, 더구나 천인계급에 속하는 기녀의 신분으로서 정상적인 교육이나 문학 수업을 받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 형태로 보아 한시와 시조에 국한된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한시는 당시 지식인들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교양으로서 시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연석이나 한가한 모임에서도 많이 지어져서 화제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리를 같이 한 기녀들도 이에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므로 기녀로서 한시에 관한 어느 정도의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점은 조선시대의 다른 부류의 여인들보다 기녀들이 매우 깊은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조는 전문적인 작가가 따로 없을 만큼 거의 모두가 한 두 수씩은 때에 따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시조와도 친숙해진 기녀들은 남성들을 받드는 자리에서 직접 이를 지어 읊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시조와 한시는 다른 것에 비하여 단형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재능이 뛰어난 기녀의 경우 이를 익히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의 정한을 진솔하게 표출해 내는 데도 산문보다 운문 쪽이 적합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남성들과의 주창에서는 한시와 시조의 형태가 알맞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기녀는 한 두 수 정도의 작품들을 지니고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황진이와 이매창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 수의 시조와 한시 작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 기녀문학을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형성

19) 이신복, 「한국 기류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논문집 11권, 단국대, 1977.

되었다고 본다.

(1) 비련의 문학

기녀는 숙명적으로 비련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남성들의 놀이개가 되었던 그들에게 사랑의 영원이란 꿈에 불과했다. 거짓 없는 애정을 주고받기도 어렵거니와 잠시 맺어지는 듯하던 인연도 종내는 이별로 귀결 되었다. 여기에서 기녀는 비련과 고독의 문학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2) 멋의 문학

비련의 문학이 숙명적인 신분에서 출발되었다면 멋의 문학은 자유분방한 태도로 끊임없이 멋을 추구한 기녀의 자세에서 출발된다. 기녀가 누린 멋의 생활은 다른 부류의 여성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일면이며, 이러한 생활의 반영으로 이루어진 멋의 문학은 기녀문학이 갖는 하나의 특징으로 규명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남성에게만 용납되어 있다시피 한 풍류의 생활도 가능했으며, 그 결과 기녀문학에서 자연 완상에 대한 작품도 많이 발견된다.

2. 황진이

1) 황진이의 생애 및 성격

황진이의 출생에 대한 기록은 <松都記異>·<中京誌>·<韶濩堂集>·<惺翁識小錄>·<燃藜室記述> 등에 전하여 온다. 이 문헌들에는 황진이가 황진사의 서녀라는 설과 맹녀의 여식이라는 설로 크게 나누어 전해지고 있으며, 후세 학자들 간에서 장덕순은 전자로, 김용숙은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들 문헌들 가운데 <松都記異>·<中京誌>·<韶濩堂集> 등에는 황진이가 황진사의 서녀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황진이의 어머니는 현금으로 자색이 매우 고왔다. 나이 18세에 兵部橋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단정하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현금을 주시하면서 때론 웃기도 하고 때론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여 현금의 마음이 몹시 떨렸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더니 해가 지고 빨래터의 아낙네들이 거의 사라지자 다시 나타나서는 노래를 부른 뒤에 물을 요구하였다. 현금이 표주박에 물을 떠서 주니 반쯤 마시고는 되돌려 주며 현금 더러 마셔 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술이었기 때문에 현금은 이것이 매우 놀랍고 이상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드디어 진이를 낳게 되었다. [20]

진이의 어머니는 진현금으로 병부교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소년이 희롱한 뒤에 가벼렸다. 그 소년은 저녁에 다시 와서 물을 청하기에 현금이 물을 떠서 주니 물이 술로 변하였다. 이에 인연을 맺게 되어 진이를 낳았는데 해산 때 이상한 향내음이 3일 동안 가시지를 않았으니 이는 바로 선녀라 어찌 黃이

---

20) <松都記異>, 母玄琴頗有姿色 年十八 浣布於兵部橋下 橋上有一人 形容端妙衣冠華美 注目玄琴或笑或指 玄琴亦心動 其人仍忽不見 日已向夕漂女盡散 其人倏來橋上 倚柱長歌 歌竟求飮 玄琴以瓢盛水而進 其人半飮 笑而還与汝且試飮之 乃酒也 玄琴驚異之 因与講飮遂生眞娘.

란 성이 있겠는가? 21)

한편 <惺翁識小錄>·<燃藜室記述> 에는 황진이가 맹녀의 여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황진이는 개성에 사는 한 맹녀의 딸로 성격은 남자처럼 활달하였고, 거문고를 잘 탔으며 노래도 잘 불렀다. 22)

이상의 상반된 두 계열의 문헌들이 황진이가 살아 있을 당시 직접 증언을 통한 것이 아니라 황진이 사후에 나온 문헌들임을 생각할 때 논리적 추측이 가능해진다. 이런 양분된 이설을 종합해 볼 때 황진이의 아버지는 양반임이 분명하며, 어머니는 여러 아낙네들과 어울려 빨래터에서 빨래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서민 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신분이 낮은 까닭에 아버지의 신분과 비교하여 더욱 비하시켜 맹녀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황진이는 절름발이 일망정 양반의 혈맥을 지녔다고 본다.

다음은 문헌에 보이는 진이의 인물됨을 평가한 것이다.

송도의 명창 진이는 여자 중에서도 활달하고 호협한 사람이었다. 23)

여기에서 진이의 첫 번째 성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녀는 여인이면서도 俠人의 성격을 지녔다고 본다.

둘째, 진이는 기녀이면서도 고결하며 지혜가 뛰어난 여인이었다.

---

21) <中京誌>, 眞之母陳玄琴 浣紗於兵部橋下 一有少年 嬉謔而去 薄暮又來 請水玄琴杓水与之 水化爲酒 仍成合飮 其姓名不告而去 意以爲仙人果有婚生眞 産時 異香滿室 三日不再齋之 則是仙女 有何姓黃耶.

22) <惺翁識小錄>, 眞娘開城盲女之子 性倜儻類男子 工琴善歌.

23) <於于野談>, 松京有名妓眞伊者 女中之倜儻任俠人也.

진이는 시정의 천한 족속 같으면 천금을 준다고 하여도 돌아보지 않았으며, 성격이 고결하여 풍류객사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24), 25)

진이가 기녀이면서도 이렇게 고결한 성격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했음이며, 이상이 높았다는 의미가 된다.

셋째, 진이는 적극적이면서도 상당한 결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이 천하의 명산이라는 말을 듣고 금강산을 비롯하여 전국토의 명산을 두루 유람한 것이나 남성편력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이 이를 보여준다.

넷째, 진이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는 진이가 절름발이 양반일망정 곱게 자라나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가에 투신한 것이나, 반년씩이나 금강산의 곳곳을 유람하고 다닌 것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이는 공격적이며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었다.

지족선사의 30년 면벽 수행의 소식을 듣고 지족암으로 찾아가서 그를 파계시킨 것이나, 서경덕이 고매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학문에 정진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는 것은 공격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생각된다.

2) 기녀 입적 배경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생으로의 입적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賤者從母法에 따라 그 소생도 기생을 모면하지 못하는 경우, 집안의 몰락으로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기가에 팔아 기적에 올리는 경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탈선 때문인 경우, 너무 미인이어서 뭇 남성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

24) <松都記異>, 若市井賤隷雖贈千金而不顧.

25) <錦溪筆談>, 眞高自標致非風流名士不得親.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1961, p.245.

경우 등 다양할 것이다.

『韶濩堂集』에 의하면 隣家書生이 진이를 열렬히 사모하다 죽은 사건 때문에 어머니의 간곡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기가에 투신하였다[26]고 한다. 그러나 이 하나의 이유로 단정 짓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으리라 추측된다. 즉 맹녀의 딸이라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신분의 숙명 때문이 아니라, 적서차별이 뚜렷한 시대에 불우하게 태어난 원인과, 앞서 언급한 隣家書生에 대한 일말의 가책과 충격, 아버지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던 터에 진이가 재색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詩·書·거문고 등에 능하였다고 하니 이러한 자질들을 바탕으로 남자들과 당당히 겨뤄 보기 위해 기가에 입적하였으리라고 본다.

3) 隣家書生과 교유인물

(1) 隣家書生

황진이가 기녀로 출가한 동기는 구구한 설이 많은 실정이다. 그 중에서 황진이의 용모가 아름다고 才藝가 뛰어나며 그 예절바른 모습에 연모의 정을 느낀 나머지 한 隣家書生이 가슴만 앓다가 급기야는 죽어갔는데, 이것이 그녀가 출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때가 황진이가 열다섯 나던 해로 그 상여가 황진이의 집 앞을 지날 때 움직이지 않아 그녀가 속적삼을 벗어 덮어주니 그제야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다.[27] 흔히 이를 근거로 그녀가 양반의 서녀에서 기생이 되었다고 『崧陽耆舊傳』에 그 기록이 전해 온다.

(2) 碧溪水

---

26) 芳年十五六時 隣有一書生窺而悅之 欲私不果 遂人緣成病死 柩發至眞門 不肯前 先是書生病 其家頗聞其事 乃事人懇眞 得其搖覆之柩 然後柩始乃前 眞大感動 於是遂稍稍以娼行.

27) <韶濩堂集>, 芳年十五六時 隣有一書生窺而悅之 欲私不果 遂人緣成病死 柩發至眞門 不肯前 先是書生病 其家頗聞其事 乃事人懇眞 得其搖覆之柩 然後柩始乃前.

종실의 벽계수란 자가 황진이가 명기임을 알고 한 번 만나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名士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았으므로 친구 손곡 이달에게 청을 하였다.[28] 이달은 꾀를 내어 벽계수에게 '그대가 소동으로 하여금 挾琴隋後케 하여 진이의 집을 지나 樓에 올라 술을 마시고 일곡을 부르면 진이가 와 그대 곁을 앉을 것이다. 그 때 본 체 만 체 하고 일어나 나귀를 타고 가면 진이가 따라올 것이니 취적교를 지나도록 돌아보지 않으면 일은 성공이라.'고 했다. 벽계수가 그 말대로 누 위에서 일곡을 부르고 일어나 취적교로 향하니 진이는 소동에게 물어 벽계수인 줄 알고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마라'의 시조를 읊었다. 이를 듣고 벽계수는 취적교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다 낙마했다. 진이가 이를 보고 웃으며 '이는 명사가 아니라 풍류랑이다' 하고 곧 돌아가 버렸다. 이 일화는 황진이의 인물됨을 엿보게도 한다.

(3) 판서 蘇世讓

판서 소세양이 小時에 女色에 대해 강직하기로 자처하여 늘 친구들에게 장담하여 말하기를 '여색에 혹함은 남자가 아니다. 듣건 데 개성에 절창 진이가 있다 하나 만일 나 같으면 30일만 같이 살면 능히 헤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추호도 미련을 안 갖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진이와 만나 30일을 살더니 그 마지막 되는 날 진이가 작별을 서글피 여겨 남루에 올라가 주연을 베풀고 한 편의 시를 지었다. 이에 소판서가 '吾其非人哉 爲之更留'라고 하여 자기의 장담을 스스로 탄하면서 마음이 동하여 다시 머물렀다.[29]

(4) 花潭 徐敬德

서경덕은 호가 화담으로 성종 己酉(1489)에 나서 명종 丙牛(1546)에 죽으

---

28) <錦溪筆談>, 黃眞者松都名妓也, 色芸俱絶 名播一國 宗室碧溪守者 思欲一眄而眞高自標致非風流名士不得親 乃謀於蓀谷李達....

29) <水村漫錄>, 蘇陽谷世讓 少時以剛腸自許 每曰 爲色所惑者 非男子也 聞松都娼眞才色絶世 與儕友約曰 吾與此姬同宿三十日 即當離絶 不復一毫係念 過此限 若更留一日 則汝輩以吾爲非人也 行到松都見眞 果名姝也 仍與交懽 限一月留駐...

니 향년 58세였다. 그는 빈한한 가정이었지만, 일찍부터 과거에 나아가지 않고 개성의 화담정사에서 독서를 통하여 성리학에 주력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황진이는 이런 화담 서경덕을 평생 흠모했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서경덕을 유혹하려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화담의 인물됨을 알아 본 황진이는 책을 끼고 그를 찾아가 배우기까지 했다. 그것은 황진이의 생애로서는 일대 전환이었다.

한편 그녀 스스로가 서화담과 박연폭포, 그리고 자신을 松都三絶이라 칭했다고 한다.[30] 그러나 서경덕의 문집에는 황진이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전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는 양반 사대부의 문집에 기생과의 교유를 기록한 예가 없어 그럴 수 있는 문제로 볼 수 있다.

(5) 開城留守 宋公

송공을 만난 때는 이미 그녀가 명기로서의 명성을 쌓아가던 때였다. 송공이 하루는 소연을 베풀었는데 황진이가 나타나 모든 남정네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關西名妓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송공의 室內夫人을 질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한편 송공 대부인의 壽宴에 참석한 모든 기생들이 가지각색의 오색찬란한 비단 옷차림과 노리개와 분연지 등으로 미색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황진이만이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광채가 사람을 움직일 정도로 그 존재는 한 떨기의 청초한 국화꽃과도 같이 이채를 띄었으며 외국의 사신들까지 '汝國有天下絶色'이라 감탄하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동석했던 악공과 그 자리의 주인인 송공에게 대단한 칭찬을 얻고, 이로 인해 화려한 기녀생활에 들게 되었다. 송공과의 만남은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6) 知足禪師

---

30) <順菴雜記>, 娼女眞娘 松都才妓也 嘗云 松都有三絶 朴淵瀑布及徐花潭一則余也. 이가원, 앞의 책, p.244.

『惺翁識小錄』[31]에 의하면 지족선사는 송도 근교 깊은 산 속의 암자에서 30여년 동안 면벽 수도해 온 스님이었다. 송도 사람들은 그를 모두 생불이라 존경하였다. 황진이는 소복을 하고 그를 찾아가 슬픈 표정으로 자신을 청상이라 소개하고는 제자로 삼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지족 선사는 미녀의 출현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자신의 수양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귀신을 쫓는 주문을 외웠다. 황진이는 나중에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고 살결을 다 드러낸 모습으로 다시 그를 찾아 갔다. 결국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유혹에 넘어가고 30년 면벽 수도도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7) 그 외의 교유인물

『於于野談』에서는 황진이가 李士宗과 李生과의 교유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선전관으로 있던 이사종은 명창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황진이의 명성을 듣고는 그녀와 교유하기를 원하여 그녀의 집 부근에 있는 천수원 냇가로 가 노래를 불렀다. 이윽고 황진이가 그의 노래 소리를 듣고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사종임을 알아내었다.

두 사람은 6년 동안의 계약으로 동거생활에 들어갔다. 먼저 3년은 황진이의 집에서, 나중 3년은 이사종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산 3년 동안은 각기 생활비의 일체를 단독으로 부담했다. 약속한 6년이 지나자 황진이는 아무런 미련 없이 헤어졌다고 한다.

재상의 아들이라고만 알려진 이생과의 교유는 매우 특이하다.

이생은 그의 사람됨이 호탕하여 황진이가 금강산 탐승의 동행을 요구했을 때 자진해서 나섰다. 곧 식량을 준비하여 단 둘이 떠났는데, 여러 곳을 구경하는 동안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이 절 저 절로 구걸을 하러 다녔는데, 그때마다 황진이가 중들에게 몸을 팔았다. 그러나 이생은 조금도 게의치 않았다고 한다.

---

31) 知足禪師 三十年面壁 亦爲我所壞.

2. 이매창

1) 이매창의 생애 및 성격

매창은 조선조 중엽 부안 출신의 명기다. 그는 가무를 비롯, 거문고, 시문에 이르기까지 매우 기예가 뛰어난 명기였다.

정확한 생몰연대를 알 수 없으나, 추측하건데, 1573년 부안의 현리인 이탕종의 딸로 태어났다. 어미에 대한 기록은 자료에 잘 보여 지지 않으며 그의 어미 역시 기생 정도로 추측이 된다. 계유년 생이라 하여, 이름을 癸生또는 桂生이라 하였고, 자를 天香, 香今 이라고도 하였으며, 자호를 梅窓이라 하여 이매창이라는 기생으로 오늘날 전해진다. 이러한 기록은 아래의『매창집』발문을 통해 짐작된다.

> 계생의 자는 천향인데 스스로 매창이라고 호를 지어 불렀다. 부안현의 아전이던 이탕종의 딸이다. 만력 계유에 나서 경술(1610)에 죽으니 나이 서른 여덟이었다. 평생 노래 부르기와 시 읊기를 잘했으며, 수백 편의 시가 있어 한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더니 지금은 거의 흩어져 없어지고 숭정 후 무신년 10월에 아전들이 외우며 전하던 여러 형태의 시 58수를 얻어 개암사에서 목판에 새긴다.[32]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총명하여, 문일지십이 무색할 정도로 뛰어나, 한 번 들은 바는 잊지를 않았고 헤아려 말하는 바가 많았다. 그가 후에 한시에 특출난 재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웠기 때문이다.

---

32) 허미자,「이매창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88, p14.
桂生字天香, 自號梅窓, 縣吏李湯從女也, 萬曆癸酉生, 庚戌死, 得年三十八, 平生善吟詠, 有詩累百餘膾炙一時, 而今幾散失, 崇禎後戊申十月日, 得於吏輩之傳誦各體並五十八首, 鋟楠于開巖寺....

시재에 능할 뿐 아니라, 거문고, 가야금도 쉽게 배워서 익혔으며, 그에 대한 재능도 후에 많은 풍류객들로 하여금 찬탄을 자아내게 만들 정도였다.
이매창은 16세기 말 부안 출신의 기생으로 妓流文學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그는 불우한 짧은 생애를 살면서 당대의 문장거벽들과 사귀며, 수백 편의 주옥같은 시가를 남겼으며, 죽은 뒤에는 고을의 현리들이 그의 시집 <매창집>을 출간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창에 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지도 않으며, 매창집의 발문과 묘비명 외에 몇몇 문헌에 보이는 일부 단편적인 기록들마저도 부식하여 생몰연대, 출신성분에 대한 誤記가 심하고, 묘비명마저도 연호는 소홀히 하고 干支만을 맞추어 각자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녀는 물질보다도 인정과 의리를 매우 중시 여겼으며, 여성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인 인고와 절제의 미덕, 그리고 기녀로서 보기 드문 굳은 절개의 미덕을 가진 여성이었다. 문헌에 나타난 기록과 시를 통해 인물됨을 추측하고자 한다.

첫째, 물질보다 정을 귀중히 여긴 인정의 여인임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自 恨>

古人交金刀　　옛 사람은 돈으로 사귀다가
金刀多敗裂　　돈으로 깨어진 이가 너무나 많아라.
不惜金刀盡　　돈이 다함은 아깝지 않지만
但恐交情絶　　다만 사귀는 정 끊일까 저어하네. 33)

<自 恨>

悖子賣庄土　　패륜아 전답 팔아 주색에 빠지더니
庄土漸扯裂　　전답 차츰 찢겨 없어졌구나.
不惜一庄土　　전답이 없어짐은 아까우리 없지만

33) 김민성, 『매창전집』, 제2권, 고글, 1998.

只恐宗祀絶　　다만 조상제사 끊어질까 저어하네.

<贈醉客>

醉客執羅衫　　취한 손 마음 두고 내 적삼 잡아
羅衫隨手裂　　당기는 손길에 비단 적삼 찢어졌네.
不惜一羅衫　　그까짓 비단치마 아깝지 않으나
但恐恩情絶　　다만 임이 주신 은정 끊어질까 저어하네.

나삼, 금도, 전답은 기녀의 입장에서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정의 여인 매창의 눈에는 비록 취한 손일지라도 자신을 찾아 사귄 인정을 더욱 귀히 여기었음을 알 수 있다. 주색 잡기에 가산을 탕진한 취객의 조상 제사까지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인정과 도리를 소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매창은 기생이면서도 몸가짐이 조신하고 정숙한 생활과 굳은 절개의 소유자이다.

이는 『조선해어화사』[34]에서 기생이면서도 성정이 절개가 있고 깨끗하여 세상 어지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음란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셋째, 매창은 아픈 현실에 인고하고 순응하는 미덕의 소유자이다.

또한 자연을 통해 인생을 관조한 풍류적 성격을 지니는 데 이들은 다음 장의 매창문학의 분석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2) 기녀 입적 배경

매창이 어떻게 해서 기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녀가 부안의 아전인 현리 이탕종의 서녀였다고 하는 일부 기록을 참고 한다면 출생신분으로 인하여 기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녀의 어미가 기녀였다는 일부

34)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1992.

의 설을 보태면 그녀는 아전과 기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신분이 어미를 따라가던 당시의 사회적 신분제도상 기녀가 되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허미자 역시 『이매창연구』에서 그는 출생신분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매창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재주 있다는 소문을 들은 태수인 우관, 서진사가 태수의 권력으로 그의 정조를 빼앗았다. 그리고는 서진사가 서울로 전근되자 따라서 서울에 갔었던 흔적이 있으나, 여의치 않았던지 다시 부안에 내려와 기생이 된 것이다. 이로 보아 서진사의 만행에 의해 본격적인 기생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3) 교유인물

(1) 유희경

유희경의 자는 應吉이고, 호는 村隱이다. 가정 을사년 생으로 92년의 삶을 살았다. 천민 출신이지만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병구완을 지극히 하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가례에 일가견이 있어서 국상 시 그를 불러 집례하게 했다 한다.[35] 시를 잘 썼으며, 임진왜란 때 유성룡을 도와 의병을 모아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다. 그는 천민이라는 신분으로 과거에 나갈 수 없었으나, 일찍부터 시를 배워 그 당시 문단에서 알아주는 시인이 되었다.

매창이 유희경을 처음 만난 것은 촌은의 나이 46세쯤이고 매창의 나이 19세쯤인 임진왜란 직전으로 추정된다.

그가 젊었을 때 부안으로 놀러 갔었는데 그 고을에 계생이라는 이름난 기생이 있었다. 계생은 그가 서울에서 이름난 시인이라는 말을 듣고는 “유희경과 백대붕 가운데 어느 분이십니까?”라고 물었다. 그와 백대붕의 이름이 먼 곳까지도

35) 장지연, 『한국기인열전』, 을유문고, 1996, p.122.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때까지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이 때 비로소 파계하였다. 그리고 서로 풍류로써 즐겼는데 계생도 또한 시를 잘 지어 『매창집』을 간행하였다.[36]

매창과 촌은은 그들의 기록에 의하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서로에 대한 연모의 정을 느꼈다고 한다. 유희경이 매창을 보고 한눈에 반했음은 그의 작품인 다음 시에서 확인된다.

<贈癸娘>

曾聞南國癸娘名	남국의 계량 이름 일찍이 알려져서
詩韻歌詞動洛城	글 재주 노래 솜씨 서울까지 울렸어라.
今日相着眞面目	오늘에사 참 모습을 대하고보니
却疑神女下三淸	선녀가 떨쳐 입고 내려온 듯 하여라.

‘계랑에게 줌'이라는 위 작품은 유희경이 매창을 애칭인 ‘계량’이라 부르며 그녀와의 첫 만남에 대해 회상의 시이다. 촌은은 서울에서부터 매창의 뛰어난 문학적 기질을 알고 있었으며, 내심 그녀를 만나고 싶어하였고, 탁월한 외모가 아닌 매창임에도 ‘선녀’와 같다고 말하는 속내에 이미 매창에 대한 깊은 연정이 자리 잡았음이 짐작된다. 이후로 유희경은 매창과 여러 편의 시를 주고 받으며 애틋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

柳花紅艶暫時春	버들꽃 붉은 몸매도 잠시동안 봄이라서
撻髓難醫玉頰嚬	고운 얼굴에 주름이 지면 고치기 어렵다오.
神女下堪孤枕冷	선녀인들 독수공방 어이 참겠소
巫山雲雨下來頻	무산에 운우의 정 자주 내리세.

36) 유희경, 『촌은집』, 권2, <行錄>, 少遊扶安 邑有名妓癸生者 聞君爲洛中詩客, 聞曰‘劉白中誰耶’ 盖君及 大鵬之名動遠邇也 君未嘗近妓 至是破戒 盖相與以風流也 癸亦能詩 有梅窓集刊行.

매창과 여러 날을 즐거이 희롱하는 가운데 지어진 이 시는, 매창의 외모에 대한 짖궂은 농담이지만, 결코 밉살스럽지 않은 촌은의 매창에 대한 애정어린 미소와 겹쳐진다. 한편, 행복한 만남과 풍류의 즐거움 속에서 봄날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유희경은 서울로 돌아갔다. 그들 사이에 사랑의 다짐이 깊었기에, 매창은 그를 기다리며 수절을 했다. 유희경도 원래 예학에 밝았던 군자였기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 기록은 없다. 그의 문집을 보면 길을 가면서도 매창이 그리워 지은 시 <途中億癸娘>가 실려 있고, 매창과 노닐던 곳에 다시 들려서 옛일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도 실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들이 매창에게까지 보내지지는 않았었는지 매창은 한 자 소식도 받지 못한 채 독수공방을 계속하였다.

첫 만남 후 여러 날 동안 풍류를 즐겼었는데, 그 후 세월이 지나 왜놈들이 쳐들어오고 그가 의병을 일으켜 싸움터로 뛰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매창은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된다. 이외에도 매창과 촌은은 만나지 못하는 동안 서로 사모하는 정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는데, 『매창집』의 한시 중 상당 부분의 시가 님을 그리는 연정의 노래인 것은 이 때문이다.

촌은 또한 위의 시 외에도 <寄癸娘>, <中逢癸娘>, <贈琴娥> 등 매창을 애칭인 계랑으로 부르며, 그리운 정을 노래하였다. 매창이 38세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가슴에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촌은 유희경 뿐이었다. 따라서 유희경에 대한 사랑이 매창의 시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유희경 또한 고희가 넘도록 매창을 사모하여 그리는 심정을 시문에 남긴 것으로 보아 매창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유희경이 매창이 죽고 나서 그를 추고하며 적은 시이다.

香魂忽駕白雲去	꽃다운 혼이 상여를 타고 백운 사이로 사라졌구나
碧落微茫歸路歟	하늘은 멀어 아득한데 돌아올 기약없네.

只有梨園餘一曲　　오직 이원에 한 곡조 남겼으니
王孫爭說玉眞歌　　왕손이 다투어 옥진가를 부르누나.

30년의 나이를 초월한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듯 먼저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의 시 한편으로 남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매창과 유희경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2) 이귀

명종임금 12년인 1557년에 태어난 이귀는 자가 옥여인데, 이율곡, 성혼에게 글을 배워서 이름을 떨쳤다. 임진왜란 때에 삼도소모관, 선유관을 역임하여 군사와 군량미를 모집하였으며, 유성룡의 종사관이 되어 소, 말, 양곡을 모집하여 군세를 만회케 했다. 그 뒤 장성 현감이 되어 군비를 더욱 충실히 했다.[37]

김지용님은 「매창문학연구」에서 『묵재일기』를 인용하여, 이귀가 김제군수로 있은 것은 37세 즉 1594년부터 약 4-5년간 번갈아 가 있었다고 했으며, 1594년-1603년 사이에 김제 군수로 갔던 기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귀의 임진왜란 중의 행적은 위에서 밝힌 바 있거니와 『선조대왕실록』에서도 이귀가 김제군수로 간 시기를 1600년 즈음으로 잡고 있다.

무술년 11월 을유에 정언 문홍도가 선조임금께 계를 올려서 송화현감 이귀를 탄핵하였는데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파면하였으며, 신축년(1601), 3월에도 암행어사 이정험이 김제군수 이귀를 파직시켰다. 즉 이귀가 김제군수로 있었던 것은 1601년 3월 21일까지 길어야 3년 남짓 된다.

이웃 고을의 군수인데다 글재주까지 뛰어난 명문 집안의 사내 이귀에게 기생 매창의 마음이 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귀와 매창의 사귐은 유희경이나 허균과의 사귐처럼 시문을 매체로 하여 가까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으며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연연한 사귐이 아닌, 글 잘하고 가무

37) 김형주, 『향토문화와 민속』, 정년기념문집, 1996, p.114.

와 탄금에 뛰어난 하향의 관기를 한 고을의 호걸스런 관장의 호기와 권위로 재임기간 동안 파적삼아 귀여워하였다가 떠난 뒤에는 까맣게 망각하여 버린 그와 같은 사귐으로 추측된다.[38] 그러하기에 구체적 기록은 없고 이귀의 후배였던 허균의 기행문에서 매창을 이귀의 정인이라고 표현한 것만 남아 있다. 그가 파직되어 떠난 뒤에 매창은 허균을 만났다. 그러나 이귀와 헤어진 지 서너 달밖에 안되었을 때 허균을 만났고, 더구나 허균은 매창이 이귀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터였으므로 그토록 마음이 맞아 하루 종일 시와 술을 주고 받으며 즐겼지만,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었다.

(3) 허균

매창과 교산 허균의 사귐은 촌은과의 사귐에 견주어 볼 때 그 내용이나 질에 있어서 다름을 알 수 있다. 촌은과의 사귐은 서로의 신분적 처지가 천류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고, 타고난 운명적 시름과 외로움을 시문으로 달래며, 이성적 정념으로까지 깊게 사귄 관계라 한다면 교산과는 시문과 인생관을 논하는 단순한 우정 이상을 넘지 않은 관계로 보아진다.

그도 그럴 것이 매창은 중인인 현리의 딸로 태어난 천기요, 교산은 당대 최고의 갑반에 문장거벽이 기라성으로 배출된 집안[39]의 호방한 대문장이었으니 두 사람은 다만 시문과 풍류, 그리고 인생관에서만 정감을 같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0여년을 사귀면서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아꼈을 뿐 남녀의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허균이 매창을 처음 만난 것은 1601년이다. 이때 매창의 나이 28세요, 허균은 32세 때인데 두 사람은 처음 만남에서부터 호감은 가졌으나 거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의 문집『성소부부고』의 <조관기행>에서 잘 나타난다.

---

38) 김형주, 앞의 책, p.115.

39) 허균의 부친 許曄을 비롯하여 큰형 許筬, 둘째형, 누님인 허난설헌이 모두 당대의 큰 문장가요, 문과 급제자다.

신축년....7월8일 정유에 벼슬을 내어 놓고 아침 동작나루를 건느다.... 임자에는 부안에 도착하였는데, 비가 쏟아져서 그곳에 머물렀다. 생원 고흥달이 찾아왔으며, 기생 계생과 만났는데, 그는 이옥여의 정인이다. 거문고를 끼고 시를 읊는데, 그 인물은 비록 뛰어나지 않았지만 재주가 있고 정이 많은 여자이어서 가히 종일토록 더불어 시와 노래로써 주고 받으며 어울려서 즐길 수 있었다. 저녁에는 그 조카를 나에게 천침시키고 자기는 슬쩍 피해버리더라.[40]

이후 허균은 매창과 가까워졌으며 만나서는 시문과 가금을 즐기고 자연을 관조하며, 참선과 신선사상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知己의 친구처럼 지낸 것으로 보인다. 허균은 1609년의 정월과 같은 해 9월에 각각 한 통씩이 편지를 매창에게 보내었음이 그의 문집에 전하며, 1610년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려 울고 율시 두 수를 지어 그를 애도하였다. 이로 보아 매창이 죽기 전 3년 동안 나눈 정의가 얼마나 돈독하고 가까웠는지를 짐작 할 수 있다.

매창과 허균의 사귐을 살펴 본 바 매창의 유희경과의 사귐은 서로 천출의 신분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외로웠던 매창이 그의 타고난 예술가적 정감의 허전함을 유희경에게 의지하려던 관계였다면, 허균과의 사귐은 학문과 인생을 터놓고 논할 수 있는 知己之友적인 사귐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황진이와 이매창 문학의 내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황진이는 조선조의 최고 개성 명기로 손꼽히며 이매창은 부안의 명기로서 각각 북쪽과 남쪽에서 당시에 이름을 날렸으며, 오늘날까지 유명한 명기들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출생과 성장과정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그 출생 신분이 천하다. 조선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 황진이는

---

40) 허균,『惺所覆瓿稿』, 권18, <漕官紀行>
辛丑... 七月初八日丁酉辭朝 渡銅雀浦.....壬子到扶安 雨甚留高生弘達來見 倡桂生李玉汝情人也 狹琴吟詩 貌雖不揭 有才情可興 語終日觴詠相和 夕納姪寢爲遠嫌也.

양반의 서녀로 절름발이 양반이었으며, 이매창 역시 현리와 기녀 사이에 태어나서 출생 신분의 한계로 기녀에 입적하게 된 배경이 동일하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을 고찰해 본 결과, 황진이와 이매창은 매우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황진이는 그 성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손심이 센 한편, 이매창은 순응적이고, 정감이 있는 여자였다.

이들 성격은 양자의 교유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된다. 황진이는 육체에 대한 지조와는 거리를 두었던 한편, 이매창은 기녀라는 신분에 비해 매우 지조가 곧았던 여성이었다. 적극적인 여성인 황진이는 자신이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해 선택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쪽으로 남성들과 교유했으며, 서경덕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과도 단순한 유흥의 일종으로서의 만남을 가지며 살았기에 그녀의 남성편력은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매창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로지 유희경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했으며 10년 지기인 허균과도 육체적인 만남은 단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려진다. 이렇듯 두 여인은 대조적인 성격차이로 인해 삶의 방식에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배경이 그녀들의 문학세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Ⅲ. 황진이 · 이매창의 문학 비교 고찰

1. 황진이 문학의 특성

1) 시조

황진이의 시조 작품은 김천택의『靑丘永言』에 <靑山裏 碧溪水야>, <冬至ㅅ돌>, <내 언제 무신ᄒᆞ여>, <어져 내일이야> 등 4수가, 김수장의『海東歌謠』에 <山은 옛 山이로되> 1수,『大東風雅』에 <靑山은 내 뜻이오> 1수 등 모두 6수가 전하고 있다. 황진이의 시조는 구조나 내용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한정지어 황진이 시조의 특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작품들을 비슷한 주제 군- 규한, 별한, 연정, 매혹, 인생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규한

조선조 여성으로 살아가던 당대의 여성들은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사대부와 달리, 규방 속에서의 고독함과 그로 인한 恨을 여러 편의 문학 작품을 통해 남겼다. 그 중 기녀들은 당대의 여성과는 다르게 수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면서 진실로 그 남성에 대한 그리움을 주체할 수 없는 많은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 황진이 역시 자유분방하고 활달한 성격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은 여러 편의 시조를 통해 달래고자 하였다.

어져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ᄃᆞ냐
이시라 ᄒᆞ더면 가랴마ㄴ 제 구ᄐᆡ여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임을 보낸 후의 후회와 한을 절절하게 그리고 있다. 떠난 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도 몰라 ᄒᆞ노라'는 체념 속에서 애틋한 이별을 받아들이며 달관하려는, 눈물겨운 애이불비의 자세가 보인다.

내 언제 無信ᄒᆞ여 님을 언제 소겻관ᄃᆡ
月沈三更에 온ᄯᆞᆺ이 전혀 없ᄂᆡ
秋風에 지는 닙 소ᄅᆡ야 낸들 어이 ᄒᆞ리오

님에게 서운하게도 한일도 없고, 속인 일도 없는데 님은 달 밝은 깊은 밤에 나를 홀로 내 버려 두었고, 나는 외로이 이 밤을 슬프게 보내는 장면이다. 자존심이 센 황진이임에도 자신을 무시한 도도한 남성 때문에 슬퍼하며,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에도 마음이 설레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있다.

(2) 별한

고금을 막론하고, 이별로 인한 情恨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서의 하나이다. 머지 않아 다시 만나게 될 이별이라도 이별의 순간에 대단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 인해 한국문학사상 주제를 '별한'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公無渡河歌>와 <黃鳥歌>는 님과의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며, 정지상의 한시 <送人>과 <서경별곡>, <가시리> 등의 고려가요,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의 정한이라는 맥락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황진이에게서 보여 지는 별한은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다음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靑山은 내뜻이오 綠水ᄂᆞᆫ 님의 정이
綠水 흘너 간들 靑山이야 變ᄒᆞᆯ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니녀 우러에어 가ᄂᆞᆫ고

이 시조는 지족 선사를 파계시키고 헤어지며 창작했다 한다. 그래서 오늘 이후 님의 사랑은 변하여도 자신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임과 이별은 있지만 애정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청산을 자신에, 녹수는 지족선사에 비유하여 이별의 한을 그린 시조이다.

(3) 연정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연모지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한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을 안겨 주기도 하는데, 정열적인 삶을 살다간 황진이에게 연정은 당대의 여성답지 않은 대담한 적극성을 부여하였고, 다음과 같은 작품으로 전해진다.

冬至ㅅ돌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내여
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황진이의 성격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작품이다. 날 중에서도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짓날 밤한 때를 임의적으로 잘라서 따뜻한 이불 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는 날 밤에 보태어 그 밤을 오래 오래 보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드러난다.
떠나간 임을 위해서라면 자연의 순리도 거역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다.

(4) 매혹

황진이는 조선의 여성과 비천한 기녀라는 신분을 초월하여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또한 타고난 매력과 기예로 인해 그 어느 여성보다도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기에 서화담을 제외하고, 굴복시키고 싶은 남성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의 모든 매력을 발산시켜서라도 끝내 유혹에 성공하곤 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시조에서 두드러진다.

青山裏 碧溪水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一到滄海 ᄒᆞ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明月이 滿空山ᄒᆞ니 수여 간들 엇더리

앞 장에서 거론된 벽계수에게 유혹하기 위해 읊은 시조이다. 은근하면서도 간곡하게 말하는 진솔함이 엿보인다. 불량기가 없고 오히려 도도한 유혹 속에 황진이의 자아가 담겨있다. 자존심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적극적으로 이 좋은 배경에서 쉬어가자는 향락에의 권유를 노래한다.

(5) 人生 無常

생로병사가 인지상정인 이상, 황진이 역시 늙고 병들어 그 아름다움이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었을 때, 찾아 든 정한이 무상감과 허탈감이다. 청춘의 생동감과 탄력이 잦아들 무렵, 진이는 다음과 같은 시조를 남겼다.

山은 옛 山이로되 물은 옛물 안이로다
晝夜에 흘은이 옛물리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ᄀᆞᆺ도다 가고 안이 오노ᄆᆞ라

진이가 평생 사모하던 서화담의 죽음을 보고 인생의 덧없음을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밤낮으로 흐르는 물은 변한다. 물과 같이 人傑도 변하고 결국은 덧없이 죽게 마련이다. 人傑은 곧 서화담을, 산은 시적 화자를 가리킨다.

고결한 인품도, 고매한 학식도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간사의 무상함을 노래했다.

이상에서 황진이의 시조 6수를 살펴보았다. 결국은 모두 절절한 한을 표현한 작품들로 단순한 감상에서 벗어나 자존심이 강했던 그녀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시

황진이의 한시는 고문헌, 시선집, 각종 시화서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當代如流漢詩文選』에 칠언절구의 <別金慶元 > 1수,『東國詩話彙成』에는 오언절구의 <松嶽山古寺>, 칠언절구의 <相思夢>, <小栢舟> 등 모두 3수,『海東詩選』에는 오언율시의 <奉別蘇判書世讓>, 칠언절구의 <朴淵瀑布>,<滿月臺> 등 3수로 총 7수의 작품이 각 문헌에 전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수록 문헌마다 약간씩 시제는 달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한 것들이다.

여기서도 황진이의 한시를 분석함에 있어서 내용상의 특질을 살펴 볼 것이며 시조와 마찬가지로 별한과 연정, 규한, 인생무상을 살펴 볼 것이고, 이에 더해서 자연친화 시로도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별한

이별에 대한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동소이한 보편적인 감정으로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상하 지위를 막론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가운데 남녀간의 이별은 정회가 남다르며 그 감정의 폭과 깊이 또한 넓고 깊어서 애틋한 감정의 토로가 가장 보편적으로 작품화 되었다.

<奉別蘇判書世讓>

月下庭梧盡	달 아래 오동잎 다 떨어지고
霜中野菊黃	서릿발 속에 들국화 피었다.
樓高天一尺	누대는 높아 하늘이 지척인데
人醉酒千觴	천잔 술에 사람들이 취했구나
流水和琴冷	흐르는 물은 거문고 소리에 들어 차고
梅花入笛香	매화꽃은 피리소리에 들어 향기롭다
明朝相別後	내일 아침 그대가 떠나고 나면
情與碧波長	그리는 정 푸른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소양곡과 한달을 생활하고 개성 남문루에서 이별의 연회를 베풀면서 지은 시이다. 두련에서 쓸쓸한 계절 가을에 오동잎은 다 지고 가지만 앙상한데 달빛은 휘영청 밝으니 이별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도 쓸쓸할 지경이다. 게다가 서리까지 내려 더욱 스산하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의 절묘한 조화로 이별의 정한을 심화 시키고 있다.

함련에서 이별의 장소가 높은 누각이며 참석한 사람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한잔 두잔 이어지는 술에 취해 있다. 이별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인가 한탄하는 장면이다. 경련에서는 거문고 소리와 물, 피리소리와 매화의 향기로움을 적절히 조화하여 이미지가 주변 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이별에 임해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더욱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다.

미련에서 자아는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헤어진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정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끝없을 것임을 양곡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약속한 한달을 넘겨 세간에 그 일화가 전해지니 당대 대표적인 시인을 감동시킨 이별의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別金慶元>

三世金綠成燕尾　　삼세의 굳은 인연 금술 좋은 짝이 되니
此中生死兩心知　　이 가운데 생사는 두 마음만 알리로다.
楊州芳約吾無負　　양주의 꽃다운 언약 내 아니 저버렸는데
恐子還如杜牧之　　도리어 그대가 두목지 같을까 두려울 뿐.

김경원과 이별하며 자신의 심회를 노래한 것이다. 자신과 김경원은 금슬 좋은 짝이 될 수 있으니 서로의 마음만 변치 않는다면 문제 될 수 없으나, 김경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과의 약조를 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자신의 신분 때문에 한순간의 불같은 사랑으로 치부할 수 있는 님을 영원히 마음 속에 매어두고 싶어 하는 황진이의 마음이 엿보인다.

요컨대 황진이가 쓰는 두 편의 이별시는 황진이의 이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보인다. 즉 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임에 대한 사랑의 영원성을 읊으며 이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면모가 보인다.

(2) 연정

앞서 말한 황진이의 시조에서 연모의 정으로 다뤄진 작품들에서는 진이의 성격대로 열정적이고 직선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었지만 진이가 쓴 한시에서는 고도의 비유적인 상징들이 쓰였다.

다음 작품은 연모의 정을 다룬 작품들로 자신의 사랑법을 고도의 비유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小栢舟>

汎彼中流小栢舟　　저 강 복판에 떠 있던 조그만 잣나무배
幾年閑繫碧波頭　　몇 해나 이 물가에 한가로이 매였던고.
後人若問誰先渡　　누가 먼저 건넜느냐, 사람들이 묻는다면
文武兼全萬戶侯　　문무를 모두 갖춘 만호후라 하리.

처음 만난 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상대를 택했던 진이의 면모가 드러난다. 자기 자신을 잣나무배로 비유하고 내가 사랑할 상대는 문무를 모두 갖춘 만호후이길 바라는 모습을 제시하였다. 몇 해를 기다릴지라도 자신이 사랑할 남자는 평범한 인물이 아닌 완벽한 남자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표현되었다.

(3) 규한

앞서 시조에서도 드러난, 사랑하는 이를 그리는 규방에서의 정한은 진이의 한시에서도 발견된다. 조선조 일반 사대부들이 풍류를 즐기며 가무와 함께 그들의 고뇌를 해소하던 시간에 홀로 규방에서 님을 기다리던 조선조 여성들의 한과는 다른 이면을 지니는 기녀의 규한은 다음의 진이의 작품처럼 기약 없고 속절없기에 '꿈'이라는 소재가 채택되기도 하였다.

<相思夢>

相思相見只憑夢	그리는 이 심정은 꿈에서나 만날 뿐
儂訪歡時歡訪儂	내가 만나 반길 때에 님이 나를 찾아 왔네.
願使遙遙他夜夢	바라거니 언제일까 다음 날 밤 꿈에는
一時同作路中逢	오가는 그 길에서 우리 함께 만나기를.

처음 만난 님과의 사랑을 가슴 가득 간직하고, 그 그리움을 꿈속에서의 만남으로 이어가려는 내용이다. 그리움이 지나치면 꿈속에서도 보게 된다는 오늘날의 속설처럼 당시의 황진이 역시 그러한 만남을 염원하는 것이다.

반김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고, 님은 나의 보고픔에 의해 수동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실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면 꿈에서나마 꼭 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4) 인생무상

송도는 한때 태평성대를 이루던 고려시대의 수도였다. 그러한 고려의 왕업이 쓸쓸한 고적으로만 남게 되었을 때, 길재와 원천석 등의 수많은 고려의 유신들은 그로 인한 무상함을 누수의 시조와 한시로 달래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詩作 행위는 비단 양반들만의 태도가 아니었고, 나면서부터 송도와 인생을 같이한 황진이 역시, 다음과 같은 두 편의 한시를 남기게 되었다.

<松都>

雪中前朝色	눈 가운데 옛날 고려의 빛 떠돌고
寒鍾故國聲	차디찬 종소리는 옛 나라의 소리 같네.
南樓愁獨立	남루에 수심 겨워 외로이 섰노라니
殘廓暮煙香	남은 성터 저녁 안개 피어나듯 떠오르네.

오백년의 왕업을 자랑하다가 몰락한 고려의 수도 송도에 대한 쓸쓸함을 노래하고 있다. 轉에서 화자는 남루에 올라서서 저녁 안개에 휩싸인 송도를 바라보며 옛 고려의 왕업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려의 몰락과 함께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된 '종'과 '눈'의 차가운 이미지가 화자의 쓸쓸함을 대변하고 있다. 뒤에 언급될 <만월대회고>와 함께 고려왕조의 무상함을 한탄하고 있다.

'인생무상'이라는 주제 의식이 화자의 삶이 아닌, 국가흥망과 관련된 점으로 보아 고려 유신들의 '회고시'와 상통한다. 여타 여류 시인과의 또 다른 점으로 높이 평가되겠다.

<滿月臺懷古>

古寺蕭然傍御溝	옛 절은 말이 없이 어구 옆에 쓸쓸하고
夕陽喬木使人愁	저녁 해 고목에 비치어 더욱 서럽구나
煙霞冷落殘僧夢	태평세월 쓰러지고 중의 꿈만 남았는데

歲月崢嶸破塔頭　　영화롭던 그 시절이 탑머리에 부서졌네
黃鳳羽歸飛鳥雀　　황봉은 어디 가고 참새들만 오락가락
杜鵑花落牧羊牛　　진달래 진 성터에는 소와 양이 풀을 먹네
神松憶得繁華日　　송악산 영화롭던 옛 모습을 생각하니
豈意如今春似秋　　봄이 온들 소슬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고려의 옛 궁궐터인 '滿月臺'는 많은 시인 묵객들에 의해 시로 형상화되어온 공간이다. 고려 유신 원천석의 시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1)

만월대는 개경에서 나고, 자라고, 죽음을 맞이한 황진이에게도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공간이다. 두련에서 '절'과 '고목'에 개경에 대한 자신의 서러움과 쓸쓸함을 감정이입 시켜 스산한 주변 경관을 읊고, 경련에서 황봉은 간 데 없고, 진달래꽃도 다 저버린 고려 수도의 황폐함이 그려졌다.

영원히 번성할 줄 알았던 고려의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봄'이 와도 따뜻해지지 않는 만월대에서 <송도>와 같은 '인생무상'을 노래하고 있다.

(5) 자연친화

조선조의 풍류 객사를 비롯하여, 자연 속에서 한거하며 안분지족의 삶을 노래한 隱逸士들은 일군의 자연친화 류의 시조 및 한시를 남겼다. 자연완상의 감흥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성정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유려한 곡조를 자연히 뿜어내게 하였는데, 반년 동안이라는 오랜 기간의 금강산 유람을 통해 자연의 웅장함과 기절함을 깨달은 진이 또한 다음과 같은 작품들로 산천유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朴淵瀑布>

一派長天噴壑磬　　한 줄기 긴 하늘이 바위 골에 뿜어 내니

41)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 l 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청구영언』)

龍湫百仞水漾漾	폭포수 백 길 넘어 물소리 우렁차다
飛泉倒瀉疑銀漢	거꾸로 쏟는 폭포 은하수 방불하고
怒瀑橫垂宛白虹	노한 폭포 가로 드리워 흰 무지개 완연하고
雹亂霆馳彌洞府	어지럽게 쏟는 물벼락 골짜기에 가득하네
珠春玉碎澈晴空	구슬 절구에 부서진 옥 창공에 맑았으니
遊人莫道廬山勝	이곳에 노는 유자 여산이 좋다고 말하지 말라
須識天磨冠海東	천마가 해동에선 으뜸 가는 곳.

서화담과, 자신 그리고 또 하나의 松都三絶이라 이야기 한 박연폭포에서의 자연완상을 그린 작품이다. 박영완은 “<만월대>와 <송도>를 읊은 시가 회고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면, <박연폭포>를 노래한 시는 간접적인 회고라 할 수 있다.”[42]라고 하여, 인생무상적인 측면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멋의 문학’의 일종으로 ‘자연친화’로 분류하여, 박연폭포의 웅장함에 대한 감탄을 노래한 시로 논의 하고자 한다.

함련과 경련에서 박연폭포의 경개를 ‘은하수’와 ‘구슬 절구에 부서진 옥’이라고 비유하였다. 하얗게 부서지는 폭포수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우아미를 느껴진다. 미련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여산 폭포보다 더 박연폭포가 아름답다고 하여 자뭇 자부심까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황진이의 시조와 한시를 살펴보았다.
뒤에 논의 될 매창에 비해 작품 수가 매우 소량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표현력을 가지고, 기녀문학에서 보이는 규한과 별한을 노래했으며, 더불어 자연친화와 인생무상의 정서도 찾을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주제 의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황진이의 자존심 강하고, 진취적인 성격이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42) 박영완, 「황진이 문학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1995, p.49.

2. 이매창 문학의 특성

1) 시조

『조선해어화사』에 매창의 시조라 하여 전하는 10수의 시조가 있으나 이를 매창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고 매창의 작품이라는 증거도 명백하지 않아[43] <梨花雨 흩날릴제> 한 수 만이 그녀의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도 이 시조 한편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이에 뒤에 언급할 한시와 달리 여러 주제의 범주로 나누지 않겠다.

梨花雨 흣날릴제 울며 잡고 離別ᄒᆞᆫ 님
秋風落葉에 져도 날을 싱각ᄂᆞᆫ가
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ᄒᆞ도다

촌은 유희경과의 이별로 인한 규한을 나타낸 시조로 이 시조에 대하여『가곡원류』는 이렇게 적고 있다.

계랑은 부안의 이름난 기생이다. 시를 잘 지었으며,『매창집』이 있다. 촌은 유희경의 애인이었는데 촌은이 서울로 돌아간 뒤에 소식이 없었으므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고 절개를 지켰다.[44]

배꽃이 하얗게 아름답게 날리던 봄날에 사랑하는 님과의 가슴 아픈 이별을 한 화자가 서늘한 가을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짓는다.

---

43) 김지용,「매창문학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 논문집, 6권, 1974

44) 허미자, 앞의 논문, p.30,
桂娘扶安名妓 能詩 出梅窓集 與村隱劉希慶故人 村隱還京後 頓無音信 作此歌而守節.

서울과 부안이라는 머나먼 공간적 거리감을 '천리'라는 소재로, '이화우'와 '추풍낙엽'을 봄과 가을이라는 또 한 차례의 시간적 거리감으로 나타내어 그 속에서 그리움에 떠는 안타까운 매창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움과 번민으로 인해 못 다 이룬 잠을 뒤척이며, 오지 않는 님의 얼굴을 꿈속에서나마 보려고 몸부림치는 고뇌 속에서 평생의 정절을 지켜 온 매창의 규한을 읽을 수 있다.

2) 한시

매창의 한시는 현재 5언 절구 20수, 7언 절구 28수, 5언 율시 6수, 7언 율시 4수로 총 58수가 전해진다.[45] 그러나,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매창 문학을 모두 다루는 작업이 主가 아니고, 황진이와의 특징 비교가 주된 연구 목적이므로, 한시 58수를 모두 다루지 않을 것이다.

즉 매창의 한시 58수 중에서 황진이와 비교될 수 있는 주제 의식인 별한, 규한, 인생무상, 자연친화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이에 덧붙여서 황진이 문학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상으로 신선사상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별한

황진이 시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조 기녀문학의 대부분은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임의 부재에서 오는 그리움이 대부분으로, 매창의 시에서도 규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할 세 수의 한시가 이별하는 순간의 목 메이는 아픔을 노래하였기에 본 고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自 傷>

45) 허미자, 앞의 논문, p14. 재인용.

洛下風流客　　서울에서 온 풍류손님
淸談交契長　　청담을 주고 받으며 지내왔네.
今日飜成別　　오늘은 갑자기 이별해야 한다니
離盃暗斷腸　　이별주 들면서 남몰래 애 끊어지네.

서울에서 온 풍류객은 유희경을 말한다. 꿈결 같은 날들을 함께 보내며 다정한 말을 주고 받던 님과의 이별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쓰리기만 하다. 기약 없는 이별을 통고하는 님에게 원망 대신 정성스레 이별주를 따르는 매창의 모습이 담겨 있다.

<自 傷>

東風一夜雨　　동풍 불며 밤새도록 비가 오더니
柳與梅爭春　　버들잎과 매화가 다투어 피네.
對此最難堪　　이 좋은 봄철에 차마 못할 것은
樽前惜別人　　이별주 나누며 임 보내는 일.

꽃들이 만발하고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는 佳節에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은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다. 가장 행복하고 싶은 날에 맞이하는 가장 슬픈 이별은 작품의 비극성을 더하고 있다.

<贈 別>

堪嗟時事已如此　　슬퍼도 견뎌야 겠지요 일이 이미 이렇게 된 것을
半世攻夫學畵油　　반생동안 그림공부에 공들였다.
明日浩然歸去後　　내일 훌쩍 돌아가고 나서는
不知何地又羈遊　　어디에서 또 머물면서 노닐지 모르겠군요.

위의 두 작품과는 다른 성격의 이별시로 볼 수 있다. 진심으로 사랑한 유

희경과의 이별에 절절한 아픔이 느껴졌다면 이 작품은 떠나가는 길손에 대한 예의를 표한 작품이라 보인다. 내일 훌쩍 떠날 님이기에 님과의 이별은 기녀로서의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2) 규한

매창 문학의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서이다.

다음 작품들에는 이별의 연장선에서 그리움에 잠 못 이루고, 견디기 힘든 그리움을 시를 읊으면서, 때로는 거문고를 타면서 인내 하려는 눈물 시린 규한의 모습이 담겨 있다.

<自 恨>

春冷補寒衣　　봄이 차서 가신 임 옷 꿰매노라
紗窓日照時　　사창에는 한나절 해가 비치네.
低顔信手處　　머리 숙여 바느질 손 놀리노라면
珠淚滴針絲　　구슬 같은 눈물이 실과 바늘 적시네.

유희경을 서울로 올려 보낸 얼마 후,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봄날의 따뜻함조차도 내면의 차가움으로 다가올 뿐이다. 기구한 자신의 인생이 서러워 그 시림을 달래고자, 따뜻한 해가 비치는 사창가에 앉아서 임의 옷을 꿰매보지만, 극복되지 않는 비애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를 뿐이다.

매창문학은 비련의 문학이라 지목될 만큼 이같이 눈물의 모습이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彈 琴>

幾歲鳴風雨　　몇 해 동안이나 비바람 소리를 내었던가
今來一短琴　　여지껏 작은 거문고를 지녀왔네.
莫彈孤鸞曲　　외로운 난새의 노랠랑 뜯지를 말자더니

終作白頭吟　　끝내 백두음[46] 가락을 스스로 지어서 타네.

어려서부터 거문고 연주를 잘하기로 소문난 매창은 그 실력이 한양에까지 들릴 정도다. 그의 실력은 시인 묵객에게도 인정받았고, 아끼던 거문고와 함께 매장되었다는『지봉유설』의 기록[47]을 보아 족히 알 만하다.

매창은 기녀의 삶을 살기 이적부터 몇 번이나 슬픈 곡은 연주하지 말자고 되 내이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은 화자로 하여금 끝내 백두음의 슬픈 가락을 연주하게 만들고야 만다. 초기에 매창은 그리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거문고 연주를 하였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의 작품 속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시어인 '거문고'로 뒷받침된다.

<春 思>

東風三月時　　동풍 불어 삼월이라
處處落花飛　　낙화는 곳곳에 꽃이 떨어지네.
綠綺相思曲　　거문고 잡고 님 그리는 노래한들
江南人未歸　　강남으로 가신 님은 오시지 않네.

강남으로 가신 님은 한양으로 떠난 유희경이다. 평생을 수절하며 지내 온 매창에게 그리움의 대상은 온통 유희경에게로만 몰려 있다. 임과 이별한 계절이 봄이기에, 매창은 봄만 되면 이토록 님에 대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늘 번민한다. 이 순간도 거문고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해보지만 역시나 역부족이다.

<自 傷>

46) 사마상여의 아내 탁문군이 지은 시.

47) 김형주,『매창문학전집』, 제 2 권, p. 139.

京洛三年夢　　삼년이나 서울을 꿈꾸었지만
湖南又一春　　호남에서 또 다시 봄이 왔어라.
黃金移古意　　황금 때문에 옛 마음 저버리고
中夜獨傷神　　밤중에 혼자 앉아 마음 상하네.

<自恨二>

含情還不語　　가슴 깊이 지닌 정 차마 말 못하고
如夢復如癡　　꿈처럼 몽롱하고 때론 멍하기도 해.
綠綺江南曲　　비파잡고 강남곡[48] 불러 보지만
無人問所思　　내 마음 어떤지 아무도 묻지 않네.

매창은 '강남곡'이라는 노래를 자주 연주했다.

유희경이 사무치게 보고파서 몇 번이나 서울을 가자고 작정을 해 온 시간이 어느 덧 삼년이 흐르고 또 다시 봄이 왔다. 그러나 기녀의 신분상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황금'에 의한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에 이 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님에 대한 그리움을 또 다시 강남곡 연주로 달래 보려 한다.

<病 中>

不是傷春病　　봄이라서 병이 난 것은 아니랍니다
只因憶玉郞　　단지 님 그리워 생긴 병이지요.
塵寰多苦累　　이 풍진 세상에 괴로움도 많아서
孤鶴未歸情　　외로운 학처럼 님께 가지 못합니다.

매창은 말년에 지병으로 인해 고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병으로 인해 38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죽게 되는 데, '님 그리워 생긴 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투병 중에도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속세에서 얻은

48) <강남곡>은 규원을 다룬 악부체 시가로서 <번역곡>과 마찬가지로 남녀 상열의 내용을 읊은 것이며, 악곡의 명칭이기도 하다.

한으로 인해 감히 님을 찾지 못하고, 그 외로움을 '학'에게 감정이입 시키는 장면이다.

<故 人>

松栢芳盟日　　송백처럼 변치 말자 맹세하던 날
恩情與海深　　사랑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었네.
江南靑鳥斷　　멀리 떠난 님에게서 소식이 끊어지니
中夜獨傷心　　깊은 밤 홀로 앉아 애태우고 있네.

<閨中怨>

瓊苑梨花杜宇啼　　고운 뜰엔 배꽃 피고 두견새 울어
滿庭蟾影更凄凄　　달빛까지 뜰에 가득 차니 더욱 서럽구나.
相思欲夢還無寢　　꿈에나 님 만날까 해도 잠 오지 않고
起倚梅窓聽五鷄　　매창가에 기대니 새벽닭 우네.

기별 없는 님으로 인해 홀로 애태우는 화자에게 밝은 달빛이 가득한 고운 뜰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서럽기 그지없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은 방정맞은 새벽닭이 무참히 깨고 만다. 지친 눈으로 밤을 새운 화자의 처연함만 남아 있다.

<閨 怨>

離懷悄悄掩中門　　이별한 후 슬퍼서 중문 닫고 있으려니
羅袖無香滴淚痕　　향내 읽은 소매에 눈물 자욱 얼룩졌네.
獨處深閨人寂寂　　홀로 있는 규방엔 찾는 이 없어 적적하고
一庭微雨鎖黃昏　　마당 가득 가랑비는 황혼을 가렸구나.

님에게는 소식이 없고, 육체는 병약하여 더 이상 삶을 지탱하기가 버거워졌다고 느꼈을 때, 마침내 매창은 중문을 닫아걸고야 만다. 홀로 고독과 그리

움을 인고해내며, 눈물 자욱 가득한 소매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다.

(3) 인생무상

육체가 병약하여 중문을 닫아 걸고, 규방에 홀로 앉으니 모든 것이 덧없기만 하다. 청춘의 아름다움이 시들해질 무렵, 매창 역시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공허함에 젖는데, 고즈넉한 명승지를 돌아볼 때의 무상함은 극에 달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던 절은 이제 호젓함만이 감돌아, 이를 지켜보는 매창의 마음에는 회한만이 사무친다. 이로 인해 매창은 다음과 같은 인생무상 류의 한시들을 남겼다.

<尋 眞>

巖下繫蘭舟	바위 밑에 목난주 매어 놓고
耽看碧玉流	옥같이 푸른 물결 바라보네.
千年名勝地	천 년 전 옛날의 명승지에는
沙鳥等閑遊	물새들만 유유히 노니는 구나.

천 년 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명승지에는 이제 세월의 흔적만 남아 물새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아름다운 배는 바위 밑에 매어져 있건만 그 주인은 어디가고 고독하고 쓸쓸한 푸른 물결만이 일렁일 뿐이다. 청춘시절에 많은 객들이 찾아 주었지만, 이제 고독한 존재가 되어 버린 공허한 심정을 그린 회한의 한시이다.

<自傷四>

驚覺夢邯鄲	부귀영화 꿈꾸다가 놀라 깨고는
沈吟行路難	살아가기 어려워라 나직이 읊어보네.

我家梁上燕　　처마 위에 의좋게 앉은 제비가
應喚主人還　　어느 날에 우리 님을 불러 주려나.

<登御水臺>

王在千年寺　　왕께서 오르시던 천년사 절에
空餘御水臺　　부질없이 어수대[49]만 남았네.
往事憑誰問　　지나간 옛일을 누구에게 묻나요
臨風喚鶴來　　바람을 맞으며 학을 부를 뿐이지요.

왕은 죽고 홀로 남은 어수대를 보면서 지난 일을 회고한다. 轉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무상함이 結의 '바람을 맞으며 학을 부를 뿐이지요'에서 사라지게 된다.

<遊扶餘白馬江>

水村來訪小柴門　　강마을 찾아가 사립문 열고 들어가니
荷落寒塘菊老盆　　찬 연못엔 연꽃 지고 국화도 시들었네
鴉帶夕陽啼古木　　석양 속에 날던 갈가마귀 고목에 앉아 울고
雁含秋氣渡江雲　　기러기는 가을 정기 품고 강을 건넌다
休言洛下時多變　　서울 인심 잘 변한다 말하지 마오
我願人間事不聞　　인간 세상 여러 일 듣고 싶지 않다네
莫向樽前辭一醉　　잔 들어 권하는 술 사양 마세요
信陵豪貴草中墳　　부귀 누리던 신릉군[50]도 무덤 속에 있다오.

인간사의 흥망성쇠가 모두가 부질없다는 것을 쓸쓸하게 깨닫는 화자의 모습이 보인다. '菊老', '古木', '墳'이 죽음의 색깔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창이 말년에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온 삶을 회고하는 시임을 알 수 있다. 강

49) 궁중에서 쓰는 물을 긷던 곳.

50) 신릉군은 전국시대 위나라 소왕의 아들.

가를 거닐면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삶의 허무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이다. 여기에 갈까마귀와 석양, 울면서 강을 건너는 기러기의 이미지가 삶의 무상함을 더욱 처연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4) 자연친화

말년에 매창은 쇠약한 몸을 이끌어, 부안 일대의 자연을 완상하게 되는데, 이는 타인들이 남긴 기존의 자연친화 류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자연 속을 거닐며 자연과 동화되는 매창이지만, 여기서의 자연은 생동감이 느껴진다거나, 훌륭하다기보다는 매창 자신의 속내와 결부되어, 다음과 같이 고요하고 차분한 한폭의 풍경화가 같은 이미지만 그려진다.

<尋 眞>

遠山浮翠色　　먼 산은 푸른 빛 물 위에 떠 있고
柳岸暗煙霞　　버드나무 강가는 안개 속에 자욱하네.
何處靑旗在　　푸른 깃발[51] 펄럭이는 곳 그 어디멘가
漁舟近杏花　　고깃배는 살구꽃 핀 마을에 닿네.

매창의 한시에는 산과 강, 그리고 버드나무가 많이 등장한다. 아스라이 푸른 빛이 감도는 산과 흐드러진 버드나무 강가에 한 척의 배가 닿고, 푸른 깃발 꽂은 주막이 이들을 맞이하는 풍경으로 다분히 풍류성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自恨四>

翠暗煙濃柳　　안개 낀 버드나무 푸르다 못해 어둡고
紅迷霧壓花　　이슬 맺힌 꽃잎은 너무 붉어 어지럽네.
山歌遙響處　　목동의 노랫소리 아득히 울리는 곳에

51) 옛날 중국 주막집은 푸른 기를 꽂았음.

漁笛夕陽斜　　고깃배의 피릿 소리는 석양에 비껴오네.

작품의 제목과 달리 시어와 이미지가 자연 친화적인 요소가 보이는 작품이다. 起에서 어둠과 푸름을 承에서 붉음의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 심상을 제시하고, 轉에서 목동의 노랫소리와 結에서의 고깃배의 피리 소리를 통해 청각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시각과 청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泛 舟>

參差山影倒江波　　크고 작은 산 그림자 강물 속에 어리고
垂柳千絲掩酒家　　늘어진 버드락지 주막을 덮고 있네.
輕浪風生眠鷺起　　가벼운 파도에 일어난 바람 자던 백로 깨우고
漁舟人語隔煙霞　　뱃사람들 말하는 소리 안개 속에서 들리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다. 起에서 맑은 강물 속에는 산 그림자가 어우러지고, 承에서 버드나무 늘어진 주막을, 轉에서 고요한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 소리와 백로, 그리고 뱃사람들의 웅성거림들이 시각과 청각의 절묘한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다.

<登明月庵>

春來人在遠　　봄은 왔어도 님은 먼 곳에 있으니
對景意難平　　봄 경치 보면서 마음 추스르기 어려워라.
鸞鏡朝粧歇　　아침이면 난새 새긴 거울 보며 단장을 다하고
瑤琴月下鳴　　달 비치면 거문고 끼고 한 곡조 탄다오
看花新恨起　　꽃을 보니 새 설음 다시 일고
聽燕舊愁生　　제비소리 들으니 옛 님 생각 솟아라
夜夜相思夢　　밤마다 님 그리운 꿈만 꾸다가

還驚五漏聲　　오경 치는 물시계소리에 놀라 깨노라.

내용 상 규한과 자연친화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이는 규한을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자연 완상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머나먼 서울 땅으로 가신 님은 기약이 없고, 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봄은 또 다시 오고야 말았다. 눈부실 만큼 고운 봄 경치를 바라보면서 님으로 인해 시린 가슴을 달래고자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게다. 자연 속에 한거하면서 님과의 재회를 꿈꾸는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5) 신선사상

신선[52]에 대한 개념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다. 유학의 경전인 十三經에는 '仙'자가 한 자도 나타나지 않고 노자의 『도덕경』에도 '仙'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선은 춘추시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 전국 시대를 넘어 오면서 혼탁한 세상을 피하여 은둔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하나의 이상향을 그리게 되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神仙이라고 하면 하늘나라에 자유로이 왕래하며 조물주인 天帝와 접할 수 있고, 인간세계에 나타나서는 생사의 한계나 시공의 경계를 초월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국문학 작품에 나타난 신선사상은 불교설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삼국유사 권4에 실려 있는 惠宿, 惠空 두 불승의 이야기는 완전히 신선의 행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 이후의 설화나 소설에서는 한국의 불승은 변화무쌍한 신술을 갖는 신선과의 복합체로 나타난다. 시가에서의 신선사상은 송강 정철을 필두로 윤고산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그 기본바탕에 이 사상을 깔고 있다.

52) 김현룡, 『신선과 국문학』, 평민사, 1979, pp.22~121.

여성의 경우에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과 욕망이 좌절되자 그로 인하여 굳어진 한이 갈망으로 옮겨져 낙원세계를 꿈꾸게 되는 데 이것이 신선사상과 결부된다. 특히 기녀의 경우에는 임과의 만남이 꿈속에서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선계에서 그들의 사랑을 이루려고 한다. 임에 대한 사랑을 체념하지 않고 선계에서 이루려는 의식의 표출로서, 선계는 매창의 존립을 지켜주는 희망의 공간으로 표상되고 있다.[53]

매창이 신선사상에 접근한 것은 시대적인 탓[54]도 있지만, 허균의 영향도 컸다. 허균이 매창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매창의 참선 여부를 묻고 '선관을 지니는 것이 몸에 유익하다[55]'고 적혀 있다.

이에 매창은 다음과 같이 여러 수의 신선사상을 담은 한시를 남겼다.

<仙遊二>

三山仙境裡	선인이 사는 삼산을 보니
蘭若翠微中	푸른 숲 속 아스라이 절이 보이네.
鶴唳雲深樹	학은 구름 깊숙한 나뭇가지에서 울며
猿啼雪壓峰	잔나비는 눈 덮인 산등이에서 우는 구나
霞光迷曉月	안개가 자욱하니 새벽달도 희미하고
瑞氣映盤空	상서로운 기운은 하늘 가득 서려 있다
世外靑牛客	속세를 등진 청우객[56]이
何妨禮赤松	적송자[57]를 찾아 인사한들 어떠리.

<仙遊>라는 시제로 시작하여 仙人, 三山, 鶴, 靑牛客, 赤松子 등의 시어가

53) 정광순, 「매창 한시 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1989, p.30.

54) 김석하, 『한국문학의 낙원사상연구』, 일신사, 1973. p.117. 이조 중· 선조 연간은 도선적 사상이 유행한 시대라고 함.

55) 禪觀之持有益身必矣

56) 신선을 지칭, 신선은 靑牛를 탄다고 함.

57) 중국 전설에 나오는 신선으로 長壽하였음. 신농씨 때의 雨師로서, 후에 곤륜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함.

다분히 선계 지향의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상서로운 기운 속에 펼쳐진 선계에는 푸른 숲 속에 절간이 있고, 구름이 짙게 드리운 나뭇가지에서 학이 운다. 이와 같은 선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이미 화자의 내면에 온통 신선 사상이 각인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를 통해 더 이상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한 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記 懷>

梅窓風雪共蕭蕭　　눈보라는 쓸쓸하게 매창을 두드리고
暗恨幽愁倍此宵　　남 모르는 한과 설움 더해 가는 밤.
他世緱山明月下　　저 세상 신선 세계 밝은 달 아래
鳳簫相訪彩雲衢　　오색 채운 거리에서 퉁소 불며 만나고 싶네.

현세에서의 삶은 오로지 임에 대한 그리움의 한과 설움의 밤들로만 점철된다. 이에 화자는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냉랭한 밤에 가만히 신선 세계의 문을 두드린다. 물론 '저 세상'이라 지목되는 공간은 내세이며, 현세에서 못 다한 情人과의 만남을 그 곳에서나마 연장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夜 坐>

西窓竹月影婆娑　　서창의 대나무에 달빛은 흔들리고
風動桃園舞落花　　바람 부는 도원에는 낙화가 춤을 춘다.
獨倚小欄無夢寐　　난간에 홀로 앉아 잠은 안 오고
遙聞江渚採菱歌　　멀리서 들려 오네 물가에서 마름따는 노래.

<登月明庵>

卜築蘭若倚半空　　하늘에 기대어 절간을 지었기에
一聲淸磬徹蒼穹　　풍경 소리 맑게 울려 하늘을 꿰뚫네.

客心恍若登兜率　　나그네 마음도 도솔천에나 올라온 듯
讀罷黃庭禮赤松　　황정경[58]을 읽고 나서 적송자를 뵈오리라.

현세에서는 기녀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해, 정착할 곳 없는 나그네 일 수밖에 없는 화자가 내세에서는 나그네의 신세를 벗어나 신선들과 함께 살고 싶은 의지를 드러내었다. 承의 풍경소리가 하늘을 꿰뚫어 화자의 욕구를 천상계로 전달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이내 시적화자는 結에서 도솔에 올라가 임을 모시고 신선 이야기를 하고, 황정경을 읽으며 적송자에게 예를 올리는 신선의 삶을 사는 듯 환상에 빠진다.

<憶 昔>

謫下當時壬癸辰　　님께서 임진 계사년에 전쟁에 나가시니
此生愁恨與誰伸　　이몸의 한과 설움이야 그 누구에게 하소 하리.
瑤琴獨彈孤鸞曲　　거문고 옆에 끼고 외로운 난새 노래 타면서
恨望三淸憶玉人　　삼청 세계[59] 바라보며 내 님을 생각하네.

유희경은 임진왜란 때 유성룡을 도와 임진왜란에 큰 공적을 세운 인물이다. 님에게서 기별이 없으신 것은 전쟁 때문이라 생각되기에 그 누구에게도 이 한스러움을 하소연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현세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 내세에 님과 함께 머물고 싶은 신선 세계를 떠 올리며 규한의 시조에서도 자주 언급된 거문고 연주로 시름을 달랜다.

<贈友人>

曾聞東海降詩仙　　일찍이 동해에서 시선이 내려와서
今見瓊詞意悵然　　지금 보니 고운 글귀에 슬픈 뜻 담겨있네

58) 도교 경전의 하나.

59) 도교의 三神, 신선이 산다는 세계로 玉淸, 上淸, 太淸을 일컬음.

緱嶺遊蹤思幾許	구령선인 노닐던 곳 어디였는가
三淸心事是長篇	삼청 세계의 심사를 이처럼 길게 엮으시니
壺中歲月無盈缺	병 속에 담긴 세월은 차고 모자람이 없지만
塵世靑春負少年	속세의 청춘은 아주 짧지요
他日若爲歸紫府	후일에 신선 세계에 돌아가시거든
請君謀我玉皇前	저도 옥황상제 앞에 데려가 주셨으면.

‘벗에게 줌’이라는 이 작품의 상대는 바로 허균이다.
일찍이 허균에게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은 매창은 말년에 자신이 일찍 죽을 것을 예감하고 현세에 이루진 못한 것들에 대한 갈등과 한을 신선 사상을 통해 극복하려 들었다. 현세가 규한으로 가득 찬 서러움의 삶이었다며 죽은 후에는 옥황상제와 더불어 신선 세계에 귀의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상에서 매창의 시조와 한시를 살펴 보았다.
시조가 한 수밖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로 매창은 황진이보다 이면에 가려져 있었지만, 위의 논의를 토대로 황진이와 비견될 만한 매창의 문학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다. 매창 문학도 기녀문학에서 흔히 발견되는 규한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고 있었으며, 그 밖에 자연친화, 인생무상의 정서도 찾을 수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매창의 문학에는 여느 기녀문학에서 발견되지 못한 신선 사상이 또 한 부류의 시선을 이루고 있음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의 황진이와의 비교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매창의 한시 58수를 모두 다루지 못하였으나, 각각의 주제의식이 뚜렷한 작품들을 몇 개 선별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밖에 매창의 한시가 나타내는 주제의식과 그 분포는 다음 장의 표를 통해 정리하겠다.

3. 양자의 문학 비교 고찰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각각으로 논의 된 황진이와 이매창의 문학 특징을 바탕으로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고자 한다.

Ⅱ장의 생애 연구에서 양자가 극명한 성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적 배경을 통해 형성된 문학의 특징을, 첫째, 내용상의 관점에서 주제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비교하겠고, 이어서 표현의 관점에서 주제 구현 방식의 비교를, 다음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세계관의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1) 주제에 나타난 작가 의식 <표-1>

주제 의식	황진이		이매창	
	시조	한시	시조	한시
연정	1	1	·	·
매혹	1	·	·	·
별한	·	2	1	4
규한	2	1	·	27
인생무상	2	2	·	4
자연친화	·	1	·	4
신선사상	·	·	·	12
기타	·	·	·	7
계	6	7	1	58

위의 표는 황진이와 매창의 전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일곱 가지의 주제

의식으로 나누어 분석 · 정리한 것이다. 공통된 주제 의식으로 '별한'과 '규한'과 함께 '인생무상'과 '자연친화'를 찾을 수 있었고, '연정'과 '매혹'의 주제는 황진이에게서만, '신선사상'은 매창에게서만 보여 지는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황진이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자아의식이 정열적인 '연정'과 '매혹'의 주제의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한편,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내면의 恨을 늘 가슴으로만 삭여야 했던 매창에게는 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신선세계의 지향'으로 자아의식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신선사상'이라는 주제에 투영된 것이다. 매창에게 '연정'의 시가 없는 이유는 황진이처럼 남성편력을 보이지 않은 채 한 평생을 유희경에 대한 그리움으로 살아 왔던 고로 '규한'의 정서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유희경에 대한 정절 의식으로, 남을 유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매창이었기에 '매혹'의 작품도 있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황진이와 이매창 문학의 주제 구현 방식을 살펴본 결과, 양자에서 발견되는 주제 구현 방식의 공통점은 진솔하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그 때 그 때의 정서를 매개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 상 직설적인 방법으로 서술하였고, 이에 반해 매창은 객관적 상관물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우의적인 방식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편, 표현기교 면에서는 황진이의 <冬至ㅅ돌>과 같은 시조가 매창의 여타 작품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冬至ㅅ돌>에서 '밤'이라는 무정물의 '허리를 베어 놓는다'라고 표현한 기발한 시적 변용은 탁월한 시적 효과를 획득함은 물론 황진이만의 멋스러운 문학성을 한껏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다.

2) 작품 속에 나타난 세계관

양자의 작품을 통해 삶의 태도를 살펴 본 결과, 황진이는 '풍류랑'의 삶을 보냈음에 비해, 매창은 '인고'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황진이가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늘 주동적인 입장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황진이의 작품인 <小栢舟>에 등장하는 '만호후'라는 남성형을 시적 화자는 늘 자신의 연정의 대상으로 꿈꿔왔고, 그의 생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녀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에서 떠돌아다니는 천민은 황금을 줘도 거절했다. 다만 권력으로나, 풍류로나 어느 면이나 완벽한 남성만을 상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창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客에게 늘 선택받는 입장이었고, 기녀라는 신분 상 어쩔 수 없이 '황금'에 의해 손님과 주창을 하면서도, 그 후에는 마음속의 정인인 유희경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기에 <自傷>과 같은 작품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그는 정절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던 고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정절의식에 있어서는 매창이 황진이 보다 한 수 위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매창의 한 남자에 대한 지고지순한 삶이 대다수의 작품인 '규한' 류의 작품에서 보여 진다면, 황진이는 남성편력의 습성으로 말미암아 '정절의식'의 관념을 한낱 쓸데없는 허위의식쯤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면은 그의 작품인 <청산리 벽계수야>라는 시조에서 '벽계수'의 유학적인 허세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위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황진이가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존심 강한 황진이는 후회는 할 지언정 절대로 남성에게 굴하지 않으려는 심사를 <어져 내일이야>와 같은 시조를 통해 드러냈다. 이에 반해 매창은 님 계신 서울을 몇 번이나 가려하고, 님이 벗어 놓은 옷가지를 정성들여 꿰매는 모습 등을 작품에서 보여주면서, 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는 자존심과 같은 의식을 한낱 거

추장스러운 관념으로만 흘려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황진이의 '자연친화' 류의 작품들은 Ⅱ장에서 본 바와 같이 황진이가 호협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들 작품은 황진이가 세상의 답답함이 싫어서 홀연 여인의 몸으로, 금강산을 반년 동안이나 유람하면서 지어낸 '자연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일반 부녀자들은 엄두도 못 낼 시도로 황진이의 남성적인 세계관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숙하고 고매한 인품을 가진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여인, 매창은 '자연친화'류의 작품에서도, 이따금 님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할 때만 봄나들이의 형식을 빌어 부안의 명승지를 찾아다닌 것이기에 황진이의 의도와는 사뭇 달랐다.

'인생무상' 류의 작품에서도 양자의 세계관은 차이를 보인다.

황진이는 기녀로서의 운명을 원없이 즐기며, 불꽃같이 살다 간 여자였다. 그랬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한스러움과 허무함이 있을 리 없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滿月臺懷古>와 <松都>라는 작품을 통해 드러난다.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대신 고려의 왕업에 대한 무상감을 노래했는데 길재나, 원천석 등의 고려 유신들이 남긴 일련의 작품에 뒤지지 않는 상실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매창의 '인생무상' 류의 작품에서는, 병약해진 매창이 말년에 느끼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한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이유는 매창이 진이와는 반대로 기녀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운명의 기박함을 눈물겹게 노래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매창은 역설적이게도 삶의 樂이자, 恨의 대상이 유희경이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유희경과의 재회였으며, 그 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비로소 허균을 만난 것이다. 허균과의 만남도 육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정신적인 知己로써,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중 신선계에 대한 언급은 매창의 詩作 활동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력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신선사상' 류의 일련의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매창의 '신선사상' 류의 작품을 살펴보면, 현세에서는 기녀의 신분에 의해 님과의 결합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복 방식으로 '선계'라는 이상향을 선택했다. 이는

<贈友人>에 등장하는 '삼청세계'와 '옥황상제에게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장면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 곳에서 매창은 현실에서 해소하지 못한 규한을 해소하려 한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도피하여 신선세계에서 자신의 갈등 양상을 극복하려 한 매창의 태도는, 황진이와 대조적이다. 황진이는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갈등 상황을 많은 남성들과의 '향락'을 통한 현세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황진이는 '풍류의 문학'을 창작하였고, 매창은 '비련의 문학'을 창작하였기에 두 여인의 문학은 색깔을 달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Ⅳ. 황진이 · 이매창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

조선시대 기녀는 사회적으로 천인 계급이었으나, 화려하고 자유로운 생활로 인해 천인 계급 중에서도 '선택된 인간'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한편, 양반사회에 대한 위축된 열등감도 피할 수 없었기에 이들 양자간이 이율배반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녀사회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기녀문학의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기녀문학은 단절되기 쉬운 양반 문학과 평민 문학 사이에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기녀문학은 남녀의 애정문제를 비롯한 인간의 喜怒哀樂을 진솔하게 그려내어 시문학의 내용과 표현에 생동감을 더하여 서정시로서의 성격을 한층 더 발전시켰다. 사대부들의 문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만이 지닌 섬세한 감정으로 진실하면서도 절실하게 사랑을 노래한 까닭에 읽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감동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기녀문학에는 그들의 삶과 생각과 감정, 고뇌와 한이 매우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기녀문학의 창작자였던 여러 기녀들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되는 인물로 황진이와 이매창의 문학을 비교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들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시조문학사상에서 황진이가 갖는 의의는 첫째, 작품성이다. 그토록 높은 격조를 유지하면서 연정과 규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품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겠다. 즉 한국시조문학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황진이는 여성작가로서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황진이 이전의 기녀문학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즉흥적 작품으로 문학성이 뛰어나지 못한 반면, 황진이는 이를 극복하여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문학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셋째, 황진이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한문학사에서 처음 등장한 여류작가라 할 수 있겠다. 시조에서 보여준 문학성을 한시에서도 그대로 표출시킬 수 있었던 능력 있는 작가였다. 넷째, 연정이나 별

한류의 작품에서 여성적 정조에 머물지 않고, 남성적인 적극성을 보임으로서 기녀작가, 혹은 여성작가라는 제한적 구분을 초월하여 한시문학사에서 하나의 개별적 작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매창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는 첫째, 한시에 대한 친근한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조선조 사대부의 시는 틀에 박힌 유교적 입장을 고수한 시가 많았다면, 매창은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한시를 우리 시조처럼 친숙하고 참신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둘째, 규한, 별한을 노래한 조선조 여성이 겪었던 사회적 모순을 인고의 덕과, 관용의 덕으로 수용하며 이를 신선사상과 접목시켰던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겠다. 셋째, 매우 많은 한시 작품을 남김으로써 여성 작가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Ⅴ. 결 론

황진이와 이매창은 조선조 기녀시인이다. 황진이는 여섯 수의 시조와 일곱 수의 한시를 남겼는데 모두 탁월한 예술성을 지녀 오늘날 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으며, 이매창은 시조 한 수와 함께 58수의 한시가 수록된『매창집』을 남겼다. 본 논문은 황진이와 이매창 각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기존 연구를 발전시켜 두 사람 사이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작가론적 측면에서 황진이와 이매창을 검토한 결과 첫째, 이들은 기녀입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황진이는 양반의 서녀로 절름발이 양반이었으며, 이매창은 현리와 기녀 사이에 태어나서 이들 모두 출생 신분의 한계로 기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들의 성격을 고찰해 본 결과 황진이와 이매창은 정반대 성격의 소유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황진이는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자손심이 강한 편이나, 이매창은 순응적이고, 정감이 있는 여자였다. 셋째, 이들의 교유인물을 살펴본 결과 황진이는 碧溪水,판서 蘇世讓, 花潭 徐敬德, 開城留守 宋公, 知足禪師 등이었으며, 이매창은 유희경, 이귀, 허균과 교유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 황진이의 작품 분석을 시도한 결과 첫째, 그녀의 작품들이 (1)규한 (2)별한 (3)연정 (4)매혹 (5)자연친화 (6)인생무상 등이 주제의식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들 작품은 그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아의식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었으며, 셋째, 기녀이면서도 여느 사대부 못지않은 풍류랑적인 삶이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이매창은 기녀의 신분으로는 보기 드물게 한문으로 많은 창작활동을 한 점이 주목된다. 그녀의 작품은 첫째, 주제에 있어서 황진이 문학에서 보여지는 (1)별한 (2)규한 (3)자연친화 (4)인생무상 외에 (5)신선사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임에 대한 사랑을 체념하지 않고 선계에서 이루려는

의식의 표출로서, 선계가 매창의 존립을 지켜주는 희망의 공간으로 표상되었기 때문이다.

3. 황진이와 이매창의 문학을 비교한 결과 첫째, 주제에 나타난 작가 의식에서 연정과 매혹의 주제는 황진이에게서, 신선사상의 주제는 이매창에게서만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 주제 구현 방식에서 먼저, 황진이는 그 때 그 때의 정서를 매개에 의하지 않고 직설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반해 매창은 객관적 상관물에 의지하여, 자신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우의적인 방식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둘째, 작품속에 나타난 세계관은 황진이가 기녀라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고, 역으로 그렇게 주어진 삶을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살은 반면에, 이매창은 기녀의 삶에 대해 회의적인 세계관을 갖고, 운명의 기박함을 눈물겹게 노래했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

4. 황진이는 '풍류의 문학'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이매창은 '비련의 문학'을 창작하였기에 두 여인의 문학이 색깔을 달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5. 황진이와 이매창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한 결과, 황진이는 여성작가로서의 최고 경지를 개척했으며 시조문학의 육성에도 일익을 담당하였고, 기녀문학의 맥을 이어받고 이를 다시 계승시킨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매창은 현실적인 불행을 신선 사상으로 형상화하여 극복하고자 했던 점과, 多量의 한시작품을 창작함으로써, 여성작가의 위상을 높인 점, 진솔한 감정을 한시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들에게 한시로의 접근을 한층 친근하게 한 점을 그 의의로 파악하였다.

■ 參 考 文 獻 ■

1. 자료

<황진이>

김신재,『中京誌』.

김택영,『韶濩堂集』.

서유영,『錦溪筆談』.

유몽인,『於于野談』.

이덕동,『松都記異』.

허균,『識小錄』.

<이매창>

김민성(1998),『매창전집』. 1-4권. 고글.

김지용(1973),『역대 여류 한시 문선』. 대양서적.

이능화,『조선해어화사』.

허경진(1986),『한국의 한시-매창시선』, 평민사.

허미자(1988),『조선조 여류 시문학 전집1』, 태학사.

2. 단행본

강전섭 편(1986),『황진이 연구』, 창학사.

김달진 역(1989),『한국 한시 3- 여류시편』, 민음사.

김동욱(1966),『이조 기녀사 서설』, 아세아여성연구 제5집,
숙대아세아여성연구소.

김명희 외(2002),『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김상홍(1999),『한국 한시의 향기』, 박이정.
김석하(1973),『한국문학의 낙원사상 연구』, 일신사.
김용숙(1979),『조선조 여류문학의 연구』, 숙대출판부.
_____(2002),『한국 한문학 논문 선집-황진이, 허난설헌 외(2)』, 불함문화사.
김제현(1992),『시조 문학론』, 예전사.
김지용(1982),『한국역대여류문선』, 대양서적.
문선규(1961),『한국 한문학사』, 정음사.
민병수(1996),『한국 한시 한문 감상』, 우석.
박창수 편(1991),『한국의 해학 14- 풍류랑 황진이』, 성부문화사.
서수생(1974),『한국 시가 연구』, 형설출판사.
서원섭(1991),『시조 문학 연구』, 형설출판사.
이종은(1978),『한국시가상의 도교사상 연구』, 보성문화사.
이태준(1999),『황진이』, 깊은 샘.
조두현 역(1994),『한국 여류 한시선』, 태학당.
허미자(1998),『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황재군(1988),『한국 고전 여류시 연구』, 집문당.
황충기(2004),『기생시조와 한시』, 푸른사상.

3. 논 문

강서형(2003),「매창 한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길(2003),「기생문학에 나타난 성」,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원동(1990),「황진이 시문학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2003),「기녀시조의 특성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흥년(2000),「황진이 시문학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1982),「황진이의 문학연구 -그의 생애와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영완(1995),「황진이 문학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미경(1997),「황진이 문학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순자(1985),「이매창 시문학론」,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광순(1989),「매창 한시문학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일향(1994),「이매창 시연구」,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정숙(1975),「황진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성근(1983),「이매창과 허난설헌 문학의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이(1987),「매창문학연구-매창집의 서지 및 그 시의 작품세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Li Liqiu(2003),「중·한기녀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학술지

김용숙(1982),「규원과 이별고 - 한시를 통해본 이조여인의 恨 분석」, 아세아 여성 연구 Vol. 21.
김지용(1974),「매창 문학 연구」, 수도여사대 논문집 Vol. 6.
박성철(1973),「황진이의 문학과 애정관의 고찰 - Stendhal의 애정론과 비교 하여」, 문리논총 Vol.2 No1.
박영완(1985),「황진이 연구」, 관동대 논문집 Vol. 13 No 1. 관동대 출판부.
박철순(1991),「황진이 시조에 나타난 표현기교의 고찰 - 상징성의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목멱어문 Vol. 4.
성낙희(1984),「황진이의 시조와 한시-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청파문학 Vol. 14 No. 숙명여대 문리대 국문과.
이신복(1977),「한국여류 문학 연구」, 단국대 논문집 Vol. 11.
이영지(1996),「황진이 시조」, 사회교육 연구논총 No 2.
이화형(1997),「황진이의 시적진실」, 외대어문 논총 No 8.
조창환(1995),「황진이, 이매창의 시조와 한시」, 인문논총 Vol.25.
p 91-107.
황순규(1984),「황진이론」, 대전대 논문집 Vol. 3. No 1.
허미자(1986),「이매창 연구 - 시를 통해본 매창의 생애」,
이화어문 논문집 Vol.8.
_____(1987),「이매창 연구 - (매창집) 판본에 관한 서지학적 접근」,
성신연구 논문집 Vol. 25.